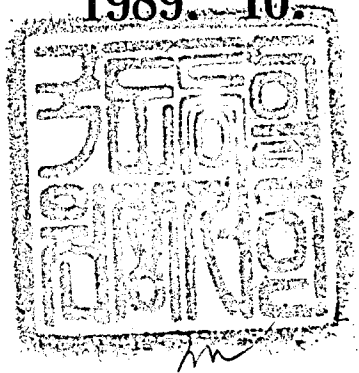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 第3次 會議錄 —

1989. 10.



國 土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7
附錄：代表團 記者會見	85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89. 10. 16 (月) 10:00 ~ 12:22

나. 場 所 :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p style="text-align: center;">〈首席代表〉</p> <p>宋 榮 大</p> <p>(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 兼 代辯人)</p>	<p style="text-align: center;">〈團 長〉</p> <p>박 영 수</p> <p>(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常務委員)</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李 峻 熙</p> <p>(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김 광 수</p> <p>(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委員)</p>
<p>李 柄 雄</p> <p>(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p>	<p>정 덕 기</p> <p>(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責任指導員)</p>

會 議 錄

2. 會議錄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南(宋榮大) : 자주 만나 반갑습니다.

北(박영수) : 예, 반갑습니다.

(記者들 寫眞撮影)

南(宋榮大) :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오시느라고 手苦가 많으셨습니다.

北(박영수) : 어제는 날씨가 흐리고 밤에 또, 거기에도 비가 왔어요?

南(宋榮大) : 예, 어제 간밤에 서울地方에도 비가 약간 왔습니다만 아침이 되니까 날씨가 이렇게 맑게 개이는 것 같습니다.

北(박영수) : 아, 그러니까 말ियो. 날씨가 밤에까지 비가 오더니 오늘 낮에는 아주 또 좋은 날씨가 되었구만.

南(宋榮大) : 내가 오늘 서울을 떠나가지고 여기에 오는 車間에서 문득 한 4年前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지난 85년에 우리가 1次 「訪問團」事業을 協議를 할 때에 第3次 接觸에서 雙方間에 意見이 맞아 가지고 合意書를 交換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第2次 「訪問團」事業과 關聯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이 세번째 입니다.

그래서 이 3次 接觸에서 무엇인가 우리 大魚를 낚는 큰 成果를 하나 내어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지금 모든 것이 發展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赤十字人들이 하는 일이 이 발전추세에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져서는 안되겠다.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자리를 같이 앉은 여섯명은 지난 1985년에 分斷以後 처음으로 南北間에 「離散家族 故郷訪問 및 藝術公演團」을 成事시킨 좋은 經驗을 가진 「有經驗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經驗을 다시 한번 살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 會談이 꼭 成功的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希望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北(김광수) : 뭐, 큰 보따리 하나 가져왔어요?

南(宋榮大) : 오늘 「보따리」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 「보따리」라고 하는 것이 두개를 합쳐서 하나가 되어야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北(박영수) : 뭐, 藝術團·故郷訪問團 交換問題는 우리가 다들해야 되니까 그건 잘 될 것이고, 우리가 이걸 中途에 그만두면 안되지요. 이것은 꼭 成事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成事시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 代表團의 立場일 뿐만 아니라 온 겨레 또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希望과 期待니까 그걸 그들에게 또 失望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돼죠.

그래 요새 거기에서는 뭐, 어떻게들 지냅니까?

南(宋榮大) : 저, 貴側도 아시리라 압니다만 「월드컵」蹴球 「아시아」地域 豫選戰 最終競技가 지금 「싱가폴」에서 열리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南팀」하고 「北팀」하고 競技를 갖습니다.

北(박영수) : 예, 압니다. 그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南(宋榮大) : 그동안의 戰績을 보니까 雙方의 實力이 비등한 것 같아요.

北(박영수) : 그래 거기 지금 競技를 하는 거래요? 지금?

南(宋榮大) : 우리팀도 1次戰에서 相對側하고 비겼고, 아마 貴側팀도 두번 해서 비겼죠?

北(박영수) : 두번해서 비겼어요.

南(宋榮大) : 비겼어요. 비등한데, 現地에서 두 監督들이 얼마 前에 만나 가지고 이야기 하기를 오늘 저녁 競技 아주 멋있게 한번 해보자 말아야.

그래서 우리 民族의 優秀한 技倆을 좀 世界 사람들 한테 알려주자. 이렇게 아주 화기애애하게 지금 對話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아시아」地域을 代表해서 두팀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南팀」·「北팀」이 「아시아」地域을 代表해서 함께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더군다나 말이죠. 年內에 우리 故鄉訪問團·藝術團이 또 오고 간다면 이것이야 말로 커다란 民族의 慶事가 될 수 있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北(박영수) : 나는 宋先生하고 意見을 달리해요.

來年度에 그 本選競技에 北과 南 두팀이 本選競技에 올라가면 안되겠다. 하나로 本選競技에 參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來年度 第 11 次 아시아競技大會 때에도 하나로 가고…….

南(李柄雄) : 그럼 單一팀으로 해서 나가면 되겠네요.

北(박영수) :蹴球選手權大會에도 하나로 가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 것입니다. 둘이 가면 안됩니다.

南(宋榮大) : 來年 아시아 競技大會에서 單一팀으로 가가지요.

北(박영수) : 아시아 競技大會에 單一팀으로 가고 왜 國際選手權大會에는 둘이…….

南(李峻熙) : 바로 이번 試合에는 이미 出戰한 狀態이니까…….

南(宋榮大) : 이번에는 그 規程이 또 달라졌어요.

아시아競技大會에는 單一팀으로 가야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또 體育會談을 며칠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成果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北(박영수) : 아, 그것 20日날로 合意되었어요. 예, 20日날 合意되었어요.

지금, 요새 우리 北半部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흥분되어 있는데, 흥분되어 있다는 말이 맞겠는지 모르겠는데, 다 來日에 대한 希望과 抱負라고 하겠는데, 내 그저 간단한 얘기를 하나 하면, 北에서 이제 最近에 「약들」이라는 것, 새로운 藥材를 하나 發見했다 단 말이에요.

둘인데 그게 사람의 人體를 維持하는데 필요한 필수「아미노산」들 이게 아주 綜合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약들」이 나오는 地方 사람들의 평균수명을 調査해 보니까, 거의 90살 以上이에요. 100살 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나도 이제 백살은 問題없겠다…… (웃음)

南(李柄雄) : 아니 그것 좀 가지고 나오셨으면 좀 주시지. 그것 먹는 것 입니까? 어떻습니까?

北(김광수) : 柄雄先生, 아주 대단합니다. (一同웃음)

北(정덕기) : 이번에 會談 잘하면 좀…….

南(李柄雄) : 그래, 이 다음에 가지고 오세요. (웃음)

北(박영수) : 그래서 實務接觸을 좀 잘하고, 그래 實務接觸이 잘 돼야 주지 뭐, 그렇게 값이 비싸요. 그것 거저 주지는 않겠단 말이에요. (一同웃음)

南(宋榮大) : 오늘 事實 지난 2次接觸이 별 進展없이 끝났다 하는 報道

가 나가게 되니까, 우리側 一部 離散家族들 사이에서는 좀 서운한 表情을 表示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會談을 잘해서 그때의 그 失望을 希望으로 바꿔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希望이 눈앞에 現實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 可視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意味에서 이 오늘의 會談이 저로서는 꼭 重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北(박영수) : 예, 그래서 이제 얘기하던 것 다 얘기를 못했는데, 그 약들 이라는게 상당히 희귀하단 말이예요. 아주 좋은 것인데…….

그래 이제 우리가 대대적으로 利用을 하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하여 상당히 興味를 느끼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童話에 나오는, 童話들에 나오는 그 것 다 아시겠는데, 금도끼 무슨 금방망이 『밥 나와라』 그러면 밥이 나오고 말이요. 『천(布) 나와라』 그러면 천이 나오고, 『집 나와라』 그러면 집이 나오고…….

이것과 비길 수 있는게 우리한테 이번에 놓았어요, 되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요전에 우리가 報道를 해서 알겠는데 이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조업식을 했는데, 이 조업식하는데 내가 갔다 왔습니다. 물론 聯合企業所 建設할 때도 가 보았었고.

그 規模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 뭐, 한개의 큰 都市, 大都市와 같은 그와 맞먹는 規模예요. 하나의 聯合企業所가 그 規模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한가지 사실만 들면 역시 化學聯合企業所다 보니까 配管들이 많은데, 配管에 그 聯合企業所 建設에 들어가 있는 配管의 길이

를 總延長하니까 얼마인가 하면 1,800 km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3千里라 그러는데, 끝에서 끝까지 3千里하고도 4,5百里가 남는다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비날론」이 앞으로 한 10萬屯 나오죠. 그 다음에 「탄산소다」 뭐, 「가성소다」, 「질소비료」 그 다음에 「메탄올」 이런 것이 나오는데, 내가 왜 금도끼라 했느냐 하면 천(布)問題가 해결되죠 거기에서, 完全히 해결됩니다.

질소비료가 나오니까 農事問題가, 이게 또 解決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메탄올」이라던가?

北(정덕기) : 「메탄올」이죠.

北(박영수) :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것하고 合成을 뭐 하고하면 이가 축사료에서 아마 一等級의 原料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고기(肉)問題가 解決되고…….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이것이 다 解決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人民들은 이 「순천비날론聯合企業所」를 조업한데 대해서 무엇이냐고 다들 얘기하는가 하니까, 이게 自立的 民族經濟의 위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모두가 마음 흐뭇한 이런 狀態에서 지금 來日에 대한 希望과 樂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간다…….

南(李峻熙) : 그래 그 工場이 잘 되어 가지고 이제 住民들의 生活水準이 높아지면 같은 同胞의 立場에서 좋은 일이죠.

北(박영수) : 아주, 峻熙先生 오늘 말씀 처음으로 한마디 잘 했구먼. (一同웃음)

南(宋榮大): 지금 우리가 祖國疆土를 금수강산이라고 그러는데 事實 南北에 賦存資源 좋은 것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協力해서 共同의 資源開發같은 것도 해야 되겠고, 뭐 이를 위해서는 經濟協力도 이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北(박영수): 아, 빨리 이제 協力·交流를 해야 됩니다.

南(宋榮大): 예, 그래서 各 分野에 걸쳐서 이렇게 서로 交流하고 協力하고 해야 되는데, 역시 지금 우리 赤十字인들이 南北關係의 「물꼬」를 트는데 있어서 先導的 役割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인가 좋은 模範을 보이고, 또 다른 分野에서도 이렇게 좋은 成果가 나타나고 하게 되면 이 南北關係가 펴 밝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또 實質問題 討論할 案件이 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歡談은 다음 機會에 또 하도록 하고 일단 會談을 하는 方向으로 準備를 해보십시오.

北(박영수): 이제 3次 接觸이란 말입니다.

朝鮮俗談에 「세번째 만에는 무언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 오늘 3차 接觸에서는 可否間 무슨 結論이 나와 될 것 같아요.

北(김광수): 수가 좋지 …….

北(박영수): 그래서 이것 오늘 接觸에서는 이 消息을 뭐 좀 전해 줄 것이 있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3次 接觸까지, 우리 1次, 1985年度 接觸때 뭐 우리 세분하고 내가 그때 마주앉아서 했는데, 1次, 2次에서 벌써 部分的인 妥協들이 되어 갔거든요.

다만 못된 것이 規模問題였으니까, 그때 規模問題 가지고 많이 끝은 것은 事實이고.

그런데 이번 接觸, 그런 見地에서 대비해 놓고 보면 1次, 2次에서 너무나 우리가 成果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흩어진 家族·親戚들이 失望을 한다는 것도 無理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希望을 주어야 되겠는데 오늘이 이거 重要한 고비다. 그래 오늘 接觸에서는 그 무엇인가 크더라도 작더라도 무슨 結實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南(李柄雄): 오늘은 하여튼 매듭을 짓고 헤어집시다.

뭐, 어떻게 하든지, 지난번에 우리가 세번에 끝냈는데, 오늘 끝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기다리는 사람들을 자꾸 希望을 꺾어 놓는 것 같아요.

北(박영수): 뭐, 애간장을 많이 줄것 같은 말이에요.

南(李柄雄): 오늘 하여간 좋은 것 많이 가져왔을 것 같은데…….

北(박영수): 그래서 저, 場內 좀 整頓하게 도와 주시죠. 記者先生들!

南(宋榮大): 자, 우선 오늘 會談의 公開與否 問題인데, 지난 2次 接觸때 우리가 非公開로 해보니까 實質的 問題討議가 잘 進展이 되었었는데, 오늘도 어떻게 非公開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北(박영수): 그것 뭐, 내가 보진데는 1次 接觸때 公開로 하지 않았어요? 2次 接觸때 非公開로 했는데, 1次 接觸때나 2次 接觸때 公開했을 때와 非公開때 뭐 달라진게 무얼 내가 찾아보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찌겠어요? 非公開로 하자고 하는데 뭐, 非公開로 합시다. 非

公開로 하죠.

南(宋榮大) : 역시 좀 우리가 會談을 生産的으로 하려고 하려면 그 方向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記者先生들 좀 協調를 해주시죠.

南(李柄雄) : 뭐, 어제 내려 오셨어요?

北(김광수) : 예, 어저께 내려왔어요. 柄雄先生은?

南(李柄雄) : 우리는 아침 8時半에 떠나 가지고 한 時間 정도 걸려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南(李峻熙) : 뭐, 이제 季節의 變化도 이제 겨울을 재촉하는데 우리도 빨리 어떻게 結束지어서 좋은 結實을 맺고 해야지요?

北(정덕기) : 예, 우리 會談을 좀 잘해서 누구보다 앞서가야지요.

南(李柄雄) : 거기서 아마 여러 時間 걸리죠?

北(박영수) : 우리 전번에 서울 나갈 때는 1時間 45分 걸리던데?

南(李柄雄) : 나갈 때?

北(박영수) : 응.

南(李柄雄) : 아, 저쪽까지 가니까, 宿所까지 가니까 2時間이 조금 더 걸려요.

南(李峻熙) : 어제 開城서 잤어요?

北(정덕기) : 그렇지요.

南(李峻熙) : 기차로 오셨던가요?

北(정덕기) : 예.

南(李峻熙) : 오늘 조금 제법 찬것 같지요?

南(李柄雄) : 오늘 쌀쌀해요.

南(宋榮大) : 예, 그래요.

北(김광수) : 우리 북쪽에는 서리가 내렸어요.

南(李柄雄) : 아마 이게 어제, 오늘 비오고 해서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든요.

北(박영수) : 오늘 첫 發言을 宋先生이 먼저 하게 되었지요?

南(宋榮大) : 예, 나도 그렇게 알고서 準備하고 나왔습니다.

北(박영수) : 좋은 案을 내십시오. 좀.

南(宋榮大) : 자, 그러면 먼저 첫 發言을 하겠습니다.

<우리側 첫發言>

北側代表 여러분!

우리는 第11次 南北赤十字會談 開催問題와 第2次 離散家族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問題를 協議하기 위해 오늘 세번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接觸에서 本會談 再開날짜 및 第2次 訪問團 交換의 날짜와 訪問團의 規模問題 등에 관해 서로의 立場을 開陳하고 討論을 벌였으나 意見差異를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第2次 離散家族 故鄉訪問團의 訪問地와 其他 다른 問題들에 대해서는 아직 本格的인 協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形便에 있습니다.

이로써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이 한 두번 정도로 끝나 事業實施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當初 期待와는 달리 接觸이 계속 이어지고 그만큼 時間이 經過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接觸에서 相互 理解와 協調하는 姿勢에서 우리들 앞에 놓여진 問題들을 成果的으로 協議·解決함으로써 滿足할 만한 結果를 生

産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次接觸時 雙方 立場을 比較하여 볼 때, 本會談 再開 및 訪問團 交換날짜와 關聯하여, 우리측은 第 11 次 南北赤十字會談을 11월 1일로, 第 2 次 訪問團의 交換날짜를 12월 8일로 提議하였습니다.

우리측이 第 11 次 南北赤十字會談을 第 2 次 訪問團 交換날짜보다 앞세운 것은 本會談의 早期開催와 妥結이 離散家族들의 不幸과 苦痛解消을 위한 根本的인 方法이므로 가능한 限 最短時日內에 열려는데 그 基本趣旨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實際 準備面에서도 第 11 次 南北赤十字會談을 第 2 次 訪問團事業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充分히 앞당길 수 있다는 判斷에서 提起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貴側은 第 11 次 南北赤十字會談보다 第 2 次 訪問團 交換事業을 먼저 實施할 것을 主張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狀況이 貴側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第 2 次 訪問團 交換事業은 實施할 수 있고 本會談 再開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赤十字 人道主義事業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環境과 條件에서도 推進되어야 하며 訪問團交換이 可能하다면 本會談도 마땅히 再開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第 2 次 訪問團의 規模問題와 關聯하여, 우리측은 이번 訪問團이 故鄉訪問團 中心으로 構成되어야 한다는 立場에서 故鄉訪問團 300 명, 藝術公演團 50 명을 提案하였습니다.

우리측이 故鄉訪問團과 藝術公演團을 規模面에서 差異를 둔 것은 이번 第 2 次 訪問團 交換의 目的이 離散家族의 苦痛解消에 있기 때문에 그 趣

을 充分히 살리면서 同時に 故郷訪問團 中心의 構成을 바라는 離散家族 當事者들의 意思와 要求를 反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故郷訪問團과 藝術公演團은 그 性格이 다르므로 故郷訪問團은 赤十字 人道主義事業 次元에서 實施하고 藝術公演團은 南北文化交流 次元에서 實施하는 것이 原則이되, 藝術公演團 交換을 굳이 赤十字事業과 結付시켜 實施할 경우, 그 數는 小規模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判斷에서 였습니다.

그러나 貴側은 前例를 내세워 故郷訪問團 300名, 藝術公演團 300명 同數構成을 主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貴側 主張은 故郷訪問團 事業의 본래의 趣旨는 물론 離散家族들의 意思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事業의 輕重을 考慮하지 않은데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雙方이 이처럼 두가지 問題에 대해 立場差異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우리측은 이것이 討議의 進展을 어렵게 만드는 要因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서로의 意見差異를 좁혀 合意를 이룩함으로써 다른 問題討議를 순조롭게 해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第11次 南北赤十字會談을 第2次 訪問團 交換날짜보다 앞세우는 것이 合理的이고 現實的이라고 생각하지만 實務接觸을 어떻게 하든지 早速히 妥結지음으로써 온민족의 期待에 副應하고 離散家族들의 苦痛解消에 寄與하려는 立場에서 다음과 같은 修正案을 내놓고자 합니다.

第2次 離散家族 故郷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交換날짜는 1989년 12월 8일로 하고, 第11次 南北赤十字會談의 開催날짜는 12월 19일로 한다.

이같은 우리의 提案은 第11次 南北赤十字會談과 第2次 離散家族 故郷

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을 今年안에 꼭 實現시키고자 하는 층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이같은 우리측 修正案을 貴側이 받아들여 날짜문제에 관한 合意를 먼저 본 다음 나머지 다른 問題들에 대한 協議·解決을 圖謀함으로써 오늘 接觸이 좋은 結果를 生産하기를 期待합니다.

以上이 우리側 첫 發言이 되겠습니다.

北(박영수) : 네, 그 날짜問題 하나에 대해서만 案을 내놓았구만요. 다른 問題에 대한 案을 내놓지 않고…….

南(宋榮大) : 우선 貴側의 첫 發言을 듣고 제가 우리 立場을 덧붙여서 설명하겠습니다.

北(박영수) : 다른 問題 저 訪問團 規模問題라든지 전번 接觸때 集中的으로 論議된 것이 두가지 問題 아닙니까?

南(宋榮大) : 네,

北(박영수) : 두가지 問題에 대한 案을 아 뭐 떨어놓고 討論하는게 좋지 그 중에서 하나만 딱 내놓으니까, 뒤에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라는지 뭐 종잡을 수가…….

南(宋榮大) : 그 問題도 우리가 서로 相對方을 理解하고 또 상대방의 立場을 尊重하는 立場에서 協議하며는 折衷點을 摸索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이 時期問題에 관해서 修正案을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貴側의 立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듣고 討論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北(박영수) : 아, 원래 이제 이 訪問團 交換事業 여기에서 重要的 게 된 가 하면, 우리가 보건대 날짜문제 물론 이것도 重要的데 그러나 보다 重

要한 것은 訪問團 交換과 關聯한 內容입니다.

規模를 어떻게 하며 그 밖에 訪問地 問題, 우리가 提起한 實況 中繼, 藝術公演團 實況中繼問題, 가령 날짜를 合意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內容에 合意 안되며는 날짜 意義 없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그 중에서도 訪問團 規模問題가, 85년도 경우를 놓고 볼 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問題에 대한 案도 전번에 充分히 論議됐는데, 아예 同時에 좀 내 놓으면 좋겠구만. 첫 發言하는데서 한가지만 딱 내놓으니까요 다른 한가지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지 우리로서야 알 수 있습니까?

南(宋榮大): 저기 우리가 지난번 그저 討論할 때에 그 時期問題를 먼저 얘기했고, 規模問題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제 訪問地라든가 藝術公演團이라든가 기타 訪問團 關聯問題가 있는데, 일단 그 時間關係上 두가지 問題만 討議를 끝내고 돌아가서 서로서로 研究해 가지고 다시 만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時期問題 제일 첫 우리가 討議, 協議해야될 時期問題를 내가 먼저 이야기 한건데…….

時期問題가 왜 重要하나, 우리 雙方모두가 다 지금 本會談 再開, 第2次 訪問團事業을 年內에 實現하자 하는 立場입니다. 年內에 實現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이 時期問題부터 뜻을 박아야 돼요.

北(박영수): 그런데 時期問題는 雙方案에서 다 年內에 하는거로 제기 됐단 말입니다. 時期問題가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하나는 내년으로 넘기자, 이런 案이 없으니까, 금년중에 하는데는 다 雙方의 立場이 같은거고…….

그런데 이 날짜를 글썽 정해 놓았댔자 內容이 合意안되면 이게 무슨 意

味있는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訪問團 規模問題에 이거 85年度 경우를 봐서 제일 어려웠던 건데.

그래서 나는 그 規模問題까지도 전번 接觸때에 充分히 論議된 바, 있기 때문에 그 案까지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안내놓겠다면 어찌겠어요. 내가 그럼 뭐 우리 案을 내놓아야지요. 좋습니다.

南(宋榮大) : 자…….

北(박영수) : 좋은걸 후에 내 놓을걸 기대하면서…….

南(宋榮大) : 아마, 저 상당히 큰걸 가져오신 것 같은데, 들어봅시다.

北(박영수) : 네. 다음번에 規模問題도, 좀 좋은 案을 낼 것을 期待하면서 내가 우리 基本發言을 하겠습니다.

〈北側 基本發言〉

南側代表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는 세번째의 接觸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두차례의 接觸을 통해서 쌍방은 본 實務代表接觸에 상정된 問題를 놓고 充分히 意見을 交換하였으며 그 過程에 서로 相對方의 立場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들의 實務代表接觸에서는 흠어진 家族・親戚들과 온 겨레에게 아무런 기쁜 소식도 전해준 것이 없으며 오히려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事實上 본 實務代表接觸에서 討議解決해야 할 問題로 말하면 쌍방이 眞實로 人導主義的 立場과 지난 時期 北南 赤十字會談들에서 이룩된 合意事項에 充實하려는 立場에만 선다면 한 두차례의 接觸으로도 타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쌍방은 상정된 문제들에 대한討議에서 한걸음도前進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두차례의 實務接觸들에서 거듭提起한 《全民聯》顧問인 文益煥牧師와 《全大協》代表 林秀卿學生, 《天主教正義具現全國司祭團》代表 文奎鉉神父 問題는 아직 貴側에서 아무런 措置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解決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第2次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과 本會談再開問題 역시 이치상으로 보나 雙方 合意事項과 온 거래의 要求로 보나 明白한 問題임에도 不拘하고 意見差異를 조금도 接近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事實을 놓고 우리는 다같이 責任을 느껴야 하며 상정된 問題들에 대한 討議를 시급히 結束하기 위해서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雙方이 흠어진 家族·親戚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데 모든 것을 服從시키는 立場에 서야 할 것 입니다.

우리는 같은 使命을 지니고 있는 北과 南의 赤十字人 들이지만 지금 적지않은 問題들에서 서로 다른 立場과 見解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形便에서 一方이 自己의 立場만을 앞세운다면 상정된 問題들을 원만히 討議解決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自己의 立場을 생각하기에 앞서 흠어진 家族·親戚들의 不幸과 苦痛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그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 누구에게서 提起된 提案이든지 좋은 것은 성근하게 받아들이는 立場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接觸過程을 놓고보면 말로는 서로 讓步하고 妥協하자고 하면서도 실지로는 對決의 觀點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自己 主張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實務代表接觸은 흠어진 家族·親戚들과 은겨레의 期待와 念願에 副應하지 못하고 있으며, 第2次 藝術團·故鄉訪問團 交換事業을 먼저 하는가, 本 會談을 먼저 하는가 하는 問題에서 조차 合意를 이룩하지 못하고 시야비야 하면서 時間을 浪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現象들이 眞實로 흠어진 家族·親戚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데 모든 것을 服從시키지 못하고 自己側을 먼저 생각하는 思考方式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서 하루속히 그러한 편협한 立場과 態度를 고쳐야 한다고 認定합니다.

다음으로 雙方이 赤十字人道主義原則에 充實하면서 同時에 統一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려는 立場을 堅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같이 分裂된 朝鮮의 赤十字人들입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北南으로 흠어진 겨레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기 위해 努力하는 동시에, 나라의 統一偉業을 위해 獻身해야 할 民族的 義務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對話를 시작하던 첫 時期에 人道主義問題를 討議解決해 나가는데서 自主·平和統一·民族大團結의 祖國統一 3代原則을 基本內容으로 하는 7.4 共同聲明精神을 철저히 具現해 나가기로 合意한 것이나 雙方이 다같이 統一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갈데 대한 大前提에 合意한 것은 바로 그러한 趣旨에서 出發한 것입니다.

우리가 眞實로 赤十字人道主義原則에 充實하면서도 統一의 디딤돌을 마

런해 나가자면 사람들이 겪고있는 不幸과 苦痛에 대하여 그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그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人道主義事業에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더우기 그것이 統一偉業을 促進시키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던 사람들인 境遇에는 政治的見解의 差異에 關係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國際赤十字大會에서 確認된 赤十字 人道主義原則과 中立性의 原則에 充實한 것으로 되며 同時에 雙方이 7.4 共同聲明의 原則을 具現하기로 하고 統一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 雙方 合意事項에도 充實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끝으로 雙方이 問題討議에서 서로 讓步하고 妥協하는 姿勢를 堅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接觸은 어디까지나 雙方사이에 進行되는 接觸이며 따라서 이 接觸의 成果與否는 雙方이 얼마나 讓步하고 妥協하는가 하는데 따라 左右됩니다.

만일 雙方이 다같이 讓步하고 妥協하려 하지않고 自己의 主張만을 고집한다면 接觸을 순조롭게 進展시켜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實務代表接觸을 成功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相對方의 提案과 主張이 실지로 흠어진 거래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며 統一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는데서 自己의 提案이나 主張보다 合理的인 것이라면 그것을 성근하게 받아들일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두차례의 實務代表接觸過程을 總和하여 보면 그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로 問題點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주고받은 意見交換과 論爭을 通해서 訪北人士들에 대한 問題나 第2次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事業을 本 會談에 앞세울데 대한 問題나 그 밖의 藝術團公演과 關聯한 問題들에서 어느 것이 眞實로 흠어진 겨레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길이고 統一의 디딤들을 마련해 나가는데 有益한 것인가 하는 것은 대체로 明白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認定합니다.

南側代表 여러분!

지금 北과 南으로 흠어진 家族·親戚들과 온 겨레는 崇高한 使命을 지니고 마련된 北南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이 하루속히 結束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千百마디의 말보다 한가지라도 實踐을 하는 것이 더 重要한 때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흠어진 家族·親戚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고 統一의 디딤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흠어진 家族·親戚들에게 血肉들과의 상봉에 대한 기쁨과 希望을 안겨주고 民族的 和解와 團합의 雰圍氣, 本會談에 有利한 雰圍氣를 造成하게 될 第2次 藝術團과 故鄉訪問團 交換事業을 實施해야 하며 그리고 좋은 雰圍氣속에서 中斷된 本會談을 再開해야 합니다.

우리 雙方은 오늘 接觸에서 상정된 問題들을 전격적으로 妥結함으로써 第2次 藝術團·故鄉訪問團 交換을 實現시키고 本會談을 再開하는데서 劃期的인 局面을 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나는 나라의 統一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한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가 自由로운 몸이 되도록 貴 赤十字社가 必

要한 措置들을 時急히 취할 것을 다시한번 促求하면서 第2次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事業과 赤十字 本會談 再開問題와 關聯한 우리側の 折衷案을 提起하려고 합니다.

折衷案을 이제부터 내놓겠습니다.

첫째로, 第2次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과 第11次 北南赤十字本會談 開催날자와 關聯한 問題입니다.

지금 이 問題와 關聯하여 우리側은 第2次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날자를 11月8日로, 第11次 北南赤十字本會談 開催날자를 12月15日로 提起하였습니다.

그리고 貴側은 第2次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날자를 12月8日로 하고 第11次 北南赤十字本會談 開催날자를 11月1日로 提起하였습니다.

이 두案을 놓고 오늘의 時點에서 打算하여보면 本實務代表接觸이 아직 結束되지 못한채 時間을 끌어가고 있는 條件에서 11月1일에 第11次本會談을 開催하는 것은 實際上 어렵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第2次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事業도 貴側이 準備期間을 最小限 1個月程度로 必要로 하는것 만큼 11月8일에 하기도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雙方의 主張과 現實的 可能性을 다같이 考慮하고 本會談 날자 問題는 招請側의 意見에 따라온 지난 時期의 前例도 考慮하면서 第2次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날자는 貴側이 提起한 12月8日로 하고 第11次 北南赤十字本會談 開催날자는 招請側인 우리가 提起한 12月15日로 하자는 것입니다. 明白하지요? 우리는 두번째 問題에 대한 提案까지 내겠습니다.

둘째로, 第2次 赤十字藝術團과 故鄉訪問團의 構成과 關聯한 問題입니다. 이 問題와 關聯하여 우리는 藝術團과 故鄉訪問團을 각각 300名씩 동수로 構成하자고 하였으며 貴側은 故鄉訪問團은 300名, 藝術團은 50名으로 하자고 提起하였습니다.

두 案을 對比해서 보면은 故鄉訪問團 規模와 關聯하여서는 300名으로 하는데 이미 一致되어 있고 다만 藝術團을 50名으로 하는가 아니면은 300名으로 하는가 하는데서만 意見差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問題도 역시 서로 相對方의 意見を 尊重하면서 合理的으로 解決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解決策으로서는 藝術團規模도 故鄉訪問團 規模와 동수로 定하는 것이 原則이지만 貴側의 意見を 考慮해서 藝術團規模를 定하되 貴側은 50名으로 하고 우리側은 300名으로 構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藝術團의 人員數를 50名以上으로 늘일 必要가 없다고 보는 貴側의 主張과 藝術團人員이 300名程度는 되어야 藝術公演을 充分히 할 수 있다고 보는 우리側의 立場을 다같이 反映한 것으로서 거기에 貴側도 다른 意見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以上에서 나는 膠着狀態에 빠진 本 實務代表接觸을 急速度로 進展시키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인 修正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이 修正案은 貴側으로서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問題點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貴側의 意見を 充分히 考慮하고 있을뿐 아니라 어떻게하나 今年 안으로 第2次 藝術團과 故鄉訪問團 交換事業도 實施하고 第11次 赤十字本會談도 再開하려는 뜻이 담긴 우리側의 새로운 提案에 貴側이 肯定

的으로 呼應해 나오기를 期待합니다.

그리해서 오늘 接觸으로 問題討議를 끝내고 흠어진 家族·親戚들과 온 겨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側의 基本發言을 이제 했습니다. 조금더 말씀하겠는데, 貴側 發言에서 아까 여러가지로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 時期같으면 될 좀더 解明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거는 그만두고 오늘 우리가 2次藝術團·故鄉訪問團 날짜를 貴側이 提起했던 12月 8日, 第 11次 赤十字會談은 招請側인 우리가 提起하는 12月 15日, 이렇게 提起를 했는데 그쪽에서 2次 訪問團 交換날짜를 12月 8日로 하고, 11次 本會談 날짜를 12月 19日로 하자 그랬죠?

南(宋榮大):예.

北(박영수):本會談 날짜 우리가 12月 15日로 했는데, 그것도 좀 같이 맞출것이 나흘동안 延期시킨 것은 무슨 意圖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問題는 지금 거의 意見一致가 된것 같습니다. 첫 發言을 통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問題는 큰 問題點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訪問團規模 問題가 중요한 問題로 남아 있는데, 그 問題에 대한 宋先生側의 좋은 案을 듣게 되기를 希望합니다.

南(宋榮大):지금 貴側이 첫발언을 하면서 또다시 會談外的인 問題인 文益煥·林秀卿 問題를 舉論한데 대해서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이 問題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舉論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문제토의와 관련하여 貴側에서 時期 問題에 관련된 修正案과 規模問題에 관련된 修正案들을 내놓았는데 우선 내 意見を 말하기 전에 첫발언에서 한가지 分明히 해야 될 部門이 있기 때문에 質問하는

겁니다. 質問에 대한 答만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제가 우리 立場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規模와 關係해서 藝術團構成에 있어서 「우리側에서는 50名으로 하고 貴側에서는 300名으로 하자」 이 이야기죠? 그러면 故鄉訪問團數는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北(박영수) : 지금 300名 : 300名 合致되어 있잖아요?

南(宋榮大) : 300 : 300 한다?

北(박영수) : 그것이요.

南(宋榮大) : 자 그러면, 故鄉訪問團하고 藝術團 規模를 합치게 되면 우리의 경우는 350이고, 貴側의 경우는 600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죠?

北(박영수) : 네

南(宋榮大)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時期問題에 關係해서 立場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雙方案을 比較해 보면, 第2次訪問團을 12月 8日날 實施하자, 이것은 意見一致가 되었습니다.

北(박영수) : 네.

南(宋榮大) : 다만 第11次會談 날짜에 關係해서, 우리側에서는 12月 19日로 이야기했고 貴側에서는 12月 15日로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서 4日 差異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本會談 날짜를 12月 19日로 定했느냐, 그 理由가 있습니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故鄉訪問團人員은 자기가 태어나서 살던 故鄉

까지 直接가도록 해주자 해서 訪問期間을 5泊 6日 日程으로 提示를 했 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2月 8日날 訪問團이 出發하게 되면 滯留期間이 12月 13日까지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5泊 6日 이니까요.

13日날 訪問團 事業이 끝나는데, 11次會談을 바로 이어서 할 경우에 특히 이것은 貴側에 該當이 되겠습니다만 15日날 本會談을 平壤에서 하게 되며는 불과 이를 차이예요.

그래서 그점을, 貴側의 準備狀況을 考慮해서 우리가 여유있게 잡아가지 고 19日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北(박영수): 뭐 우리側을 염려해서 했다면은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本會談 날짜 問題는 招請側이 定하게 된거니까 慣例에 따르기로 하고 그 다음에 藝術團·故鄉訪問團 交換 날짜 問題, 이제 訪問地 問題랑 같이 討論되겠는데 우리는 중전과 같이 3泊 4日로 할것을 豫見한 겁니다. 그걸 前提로 한겁니다.

南(宋榮大):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지금 第2次 訪問團 날짜하고 11次會談 間隔이 며칠이 됐든 貴側 立場에서는 별 상관 없다 하게되며는, 第2次 訪問團 날짜를 12月 8日로 하고 第11次會談 날짜는 貴側이 提起한데로 12月 15日로 하는것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分明히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는 이 날짜 合意에 있어서 訪問期間 5泊 6日을 前提로 하고 있다는 것을 分明히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問題는 다음에 討論하도록 하고 다음에 인제 規模問題를 貴側에서 이야기 했는데…….

北(박영수) : 지금 내 하나 물어 보겠는데, 規模問題에 대한 新案을 내자는 겁니까? 그냥 規模問題에 대해 이제부터 討議에 들어 가자는 겁니까, 됩니까?

南(宋榮大) : 그거 내 지금 이야기 하겠어요

北(박영수) : 아니 그러니까 討議하자는 건가?

南(宋榮大) : 내 이야기 하겠어요.

지금 規模問題에 관해서 貴側이 내놓은걸 보며는 이것은 좀 우리가 깊이 있게 研究가 될 問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訪問地 問題를 좀 討論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訪問地도 時期나 規模問題 못지 않게 重要합니다. 또 사실상 지난번 2次接觸때 우리가 訪問地 問題를 오늘 3次接觸에서 協議를 하자고 約束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訪問地 問題에 대해서 우선 討論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남아 있는 것이 公演問題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정도는 討論을 한다음에 貴側에서 내놓은 規模問題에 대해서 이야기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北(박영수) : 가만, 그러면 좀 달라지는데……

그럼, 일단 날짜 問題는 雙方이 이 정도로 意見의 一致가 돼가니까 아무래도 이번 本會談 날짜문제 또 訪問團交換 날짜문제 그리고 訪問團交換과 관련한 다른 節次問題, 이것 다 합해서 하나의 合意書를 採擇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죠?

南(宋榮大): 네.

北(박영수): 그러니까 날짜 문제는 이 정도로 見解가 一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서로 留意를 하고, 또 記錄에 남아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어쨌든 다음 問題討論으로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訪問團 規模問題나 訪問地 問題나 하는거는 좀 討論을 해야 되겠고…….

그 전에 내가 간단히 한가지 明白히 하고 넘어가야 할 問題는 우리 基本發言에 대해서 宋先生이 論評을 하면서 北을 訪問한 人士들에 대한 問題를 論評을 했는데 우리는 이 問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 전번 두차례 接觸들에서 이야기가 됐지만 이 問題로 말하면 우리는 提起할 權利가 있고 또 그쪽에서는 履行할 義務를 지니고 있는거다……

그리고 만약 이 問題가 解決되지 않음으로써, 양고 있음으로써 이것이 앞으로 北南對話 또 北南關係 全盤에 하나의 응어리로 남아 있게 된다는 그 事實입니다.

자 앞으로 어쨌든 어떤 方法으로든지 우리는 貴側에서 이 問題에 대해서 좀더 赤十字人道主義 立場에 서서 應당한 措置를 취해야 한다고 認定을 합니다.

이 問題 더 論議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 問題 이자리에서 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問題로서 訪問團 規模問題인가 아니면 訪問團의 訪問地 問題인가 이 問題인데, 뭐 會談에 의례이 訪問團 規模問題를 좀 討議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이 3次接觸에 나오면서 訪問團 規模問題와 關聯해서도 어쨌든 修正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意見이라도 말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 좀더 고치자든가 이런 意見을 놓고, 내놓고 더 協議를 하는게 옳지, 우리가 修正案을 내놓았는데 論議는 안하겠다고 하니가 이거야 잘 안되는거지…….

北(김광수) : 宋先生, 오늘 좋은案 좀 내놓으시지요.

南(宋榮大) : 會談外的인 問題는 더이상 擧論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다시 박先生께서 이 問題를 提起를 하는데, 내가 지난 두차례에 걸쳐서 文益煥·林秀卿 問題에 관해서는 貴側이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貴側이 오늘 또 세번째 나와가지고 마치 깨진 유성기판 돌리듯이 똑같은 말 되풀이 하는 것을 보고서 펍 딱한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文益煥·林秀卿 問題에 대한 理解가 덜 됐으면 지난번 速記錄을 보십시오. 그 速記錄 보면 그 問題에 관한 우리의 立場이 分明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세번 만나가지고 이자리에서 妥結을 짓자, 實務問題를 해보자 해가지고 雙方이 지금 修正案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討論을 벌리고 있는 마당에 그 問題를 중간에 또 꼬집어 내게 되며는 우리 會談霧圍氣 흐리게 하고 實質問題 討論에 支障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말 안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規模問題를 먼저 하겠느냐 또 訪問地 問題를 먼저 討論하겠느냐 이 問題에 관해서 내가 좀 研究를 해서 討論하자, 우선 訪問地가 중요한 問

題이기 때문에 이걸 아직도 우리 會談席上에서 한번도 討論을 못한 問題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자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이 規模 問題에 관해서는 내가 訪問地問題 討論한 다음에 나의 立場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訪問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北(박영수) : 그런데 왜 또 그렇게 順序를 이번에는 바꾸겠다고 그러는가…….

南(宋榮大) : 아니 바꾸는게 아니죠.

北(박영수) : 訪問地問題 다음에 이야기 할것 같으면 지금 좀 할것이지…….

南(李峻熙) : 두 問題는 했고 이제 나머지 訪問地 問題하고 公演問題 討論에 들어가다가 지난번 끝이 났으니까……

貴側에서 내놓은 그 案은 우리가 지금 立場을 確認했으니까 나머지 問題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立場을 밝히면 되잖아요.

北(박영수) : 가만, 그러면 내가 거기에 對答을 해야 되겠는데 그 對答을 김광수 代表한테 내가 넘기겠습니다.

北(김광수) : 貴側에서 이제 날짜 問題에 대한 案을 내고 우리도 날짜 問題에 대한 案을 내서 討論했습니다.

그렇게 날짜 問題討論이 끝난 다음에 貴側의 主張이 전번에 訪問地 問題를 討論 못했으니까 訪問地 問題를 討論하고 다음에 規模問題를 討論하고자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그것이 合理的이라고 얘기한테 대해서는 나는 見解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토의한다 하게 되면 처음부터 貴側이 날짜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전번 1차와 2차회담에서 討論하지 못한 訪問地問題라든가 藝術團公演과 관련된 여의 나머지문제를 먼저 討論하고 이 문제

를 討論하자 하면 貴側의 主張이 一貫性있고 맞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貴側은 오늘 날짜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重要하게 이 會談에서 妥結돼서 合意를 보아야 할 規模問題를 뒤로 미룬다면 여의 問題를 討論하고 合意를 봐도 큰 意義가 없습니다. 지금, 規模問題가 먼저 解決돼야 다른 問題들이 해결되지 만약 날짜문제에 대한 基本的인 合意를 봤습니다.

合意를 봤다해도 規模問題에서 合意를 보지 못한다 하게되면 이 날짜문제에 대해서 意義가 없어집니다. 그렇게끔 規模問題 討議가 重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規模問題 討論을 集中해서 먼저 妥結시켜 놓고, 그렇게 하고 여의 그다음 問題도 討論하자, 이왕 討論에 내려오던 김에 그건 하나 빼놓고 다음문제로 넘어가자 이렇게 되면,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貴側의 主張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南(李柄雄): 이게 좀 상당히 實務的인 문제거든요. 왜냐 지금 일짜문제를 合意봤는데 그 일짜에는 이제 期間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期間이 지금 우리가 提示한 期間하고, 그쪽에서 提示한 期間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은 어디하고 또 걸리느냐, 訪問地 問題하고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짜問題와 期間과 訪問地를 같이 討議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이 問題가 이거 그러면 期間을 언제로 할거냐, 지금 여기 날짜는 12月 8日 또 12月 15日 이렇게 되어있지만 그걸 5泊 6日이나 3泊 4日이나, 그거 정하는 問題가 바로 訪問地하고 關係가 되거든요. 그

러니까 이 問題를 딱 매듭을 저서 그리고 넘어가자 하는 얘기에요.

北(박영수) : 아니 柄雄先生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그 宋先生은 이미 그건 우리측 11차 本會談에서는 우리側이 招請側이기 때문에 우리側의 事情을 고려해서 12月19日로 提起를 했던거고, ………

그러나 우리가 무슨 5泊6日로 하든지 3泊4日로 하든지 8日부터 訪問團을 交換하고 그다음에 15日에 本會談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문제 없다며는 일없다. 그렇기 때문에 15日로 同意한 것 아닙니까?

南(李柄雄) : 그러니까 本會談 날짜는 그렇지만, 期間은 몇일로 할거나 하는 問題가 連結이 되는 問題지요.

北(김광수) : 그렇기때문에 이제 本會談 날짜와 聯關시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말이고, 그다음 순서대로 내려갑시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지요. 이거 우리가 規模問題와 關聯해서 새로운 案을 내놓지 않았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첫 發言에서 規模問題에 대한 修正案을 내놓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얘기도 안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는데,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南(李峻熙) : 박선생, 우리 아까 宋代表께서 그거 얘기했잖아요. 일차問題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서로 意見이 一致가 됐고, 그다음에 이 規模問題에 대해서는 그 訪問地 問題라든가 여타문제를 討議하며는 우리 나름대로의 案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못받을 것 뭐 있어요. 딱딱하게 그렇게 있어요?

北(박영수) : 아니 그러니까, ………

南(李峻熙) : 그럼, 다음문제 討議할 것 무슨 先後가……

南(宋榮大) : 이제 내가 좀 얘기하지요. 내가 지금……

北(박영수) : 내가 다음번에……

南(宋榮大) 기다리세요.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北(박영수) : 내가 좀 물어보지요. 峻熙先生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다음번에 訪問地 다음에 規模問題를 討論하며는 劃期的인 저 무슨 修正案이 나올 展望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좀 期待를 해 볼 用意가 있습니다.

南(宋榮大) : 아니, 그것은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訪問地·規模·時期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같이 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만 딱딱 떼어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운 問題예요. 더군다나 이 訪問地하고 規模問題는 密接한 聯關이 있습니다.

왜냐, 故鄉까지 直接 가게 되며는요, 그 規模가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北(박영수) : 그래 300명이상 늘릴 생각입니까?

南(宋榮大) :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北(박영수) : 그것만 좀 明白히 하세요.

南(宋榮大) : 規模問題 얘기할 때 내가 그 問題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訪問地 規模가 다 서로가 密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번도 討論하지 못한 이 訪問地에 대해서 먼저 討論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貴側이 내놓은 規模에 관한 修正案을 결부시켜서 함께 討論하자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며는 討論이 立體的으로 함께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意見交換을 못한 이 訪問地에 대해서 자꾸 또

뒤로 미루자고 하는 理由가 무엇입니까?

北(박영수): 뒤로 미루긴 누가 뒤로 미루자고 해요. 이번 接觸에서 다 討論돼야 하는데, 일단 規模問題에 대해서는 우리가 修正案을 내놓았다는, 바로 거기에 問題가 있어요.

南(宋榮大): 아,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는……

北(박영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見解를 내야지……

南(宋榮大): 우리가 見解를 밝히는데 問題는 이 訪問地하고 規模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訪問地에 대한 討論을 한 다음에 내가 우리 立場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南(李柄雄): 그래야 順序가 맞아요.

南(宋榮大): 그렇지 않아요?

北(박영수): 그러니까 訪問地에 대한 立場을 밝힌 以前이어서 規模問題에 대한 案을 내놓겠다는 겁니까?

南(宋榮大): 내가 얘기하겠단다, 그거예요.

南(李柄雄): 期間이 맞아야지……

北(박영수): 가만히 가만. 柄雄先生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宋先生 訪問地 問題에 대한 自己主張을 하고, 그 發言 끊지 않고 연이어서 規模問題에 대한 意見을 내겠다는 겁니까?

南(宋榮大): 訪問地 대해서……

北(박영수): 訪問地에 대해서 우리 意見交換을 다 한다음에 그다음에 規模問題 討論하겠단다는건가 양자간에 어느거요? 그것만 명백히 하세요.

그렇게 하며는 연이어서 내놓겠다고 하며는 우리 뭐 구태여 저……

北(김광수): 訪問地 問題에 관한 修正案을 提起하겠다고 그런것인지……

南(宋榮大) : 아니 지금은 우리 討論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번 만났는데, 응 세번 만났는데, 訪問地나 公演團 問題는 한번도 討論이 안됐어요. 첫 發言을 통해서 기본입장만 밝혔지, 한번도 意見交換이 안됐습니다. 意見交換이 안돼있는 바탕위에서 修正案을 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야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 중요한 두가지 問題에 대해서 意見交換을 하고, 거기에 基礎해서 修正案을 낼 必要가 있으면 내고 調整을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貴側에서는 자꾸 이 規模問題만 먼저 어떻게 하자 하자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거 안하잖단 얘기 아닙니다. 討論해요.

그런데 立場을 밝힌다는 애깁니다.

北(박영수) :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명백히 해보라구요.

南(宋榮大) : 하여튼 내가 그러머는 이 訪問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서 貴側 意見 한번 들어봅시다.

北(박영수) :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지요. 訪問地問題 討議 판을 벌리지 말고, 그러면 그 訪問地問題 뭐 意見差異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싸움하다가 論爭을 하다가 뭐 또 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면, 이렇게 되머는 안된다 그말이지요.

왜그러냐 하면 訪問團 規模問題에 대해서 우리 오늘 修正案을 내놓았거든요. 우리가 修正案을 내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 이런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案을 내야지 거기에 대한 案을 내지 않고 訪問地問題 討論하고 넘어가자고 하머는, 아 글썬 立場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는 말이야요.

南(宋榮大): 우리가 會談을 하는데요 雙方會談 아닙니까? 일방에서 修正案을 내며는……,

北(박영수): 그런데……

南(宋榮大): 他方에서, 他方에서 거기에 대한 立場을 밝히는 것은 그건 자
기들 필요에 의해서 즉석에서 立場 밝힐 수도 있는거고, 다음 會談에서
밝힐 수 있는거고 그런겁니다.

그런데 貴側은 자꾸 지금 一方的으로 말이지 強要하는 스타일이예요.

우리가 이거 냈으니까 빨리 대답하라. 이거 대답 안고서는 판 것
못하겠다. 그건 우리 一方通行式입니다.

北(박영수): 그렇게 저 또 너무 歪曲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南(李柄雄): 사실은 지금 거기서 이 規模에 대해서 修正案을 냈다고 그
러는데 計數上에는 아무 修正이 없잖아요?

北(박영수): 아니 그러니까……

南(李柄雄): 計數上에 뭐 거기서 例를 들어서 어느정도 調整을 했다든가,
藝術團 人員 몇명 調整했다든가, 그것은 이야기를 엮은 정도에서는 사실
상 큰 修正案이 없는 거예요.

北(김광수): 아니예요. 貴側의 意見을 受容한 것이예요.

南(李柄雄): 아니 글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죽 나온 問題들을 한번
죽 다시 討論해보고……

北(박영수): 가만 柄雄先生, 좀 가만있어봐요. 그러니까, 이자 그 柄雄先
生이 代表資格으로 그것은 별것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자 宋先生 입으로 이자 그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겁니까, 뭐니까?
같은 見解입니까? 그걸 論議해보잔 말이요. 뭐 다른게 있어요?

南(宋榮大): 저 내가 이거봐요. 이 會談뿐 아니라 다른 會談에서도 일방이 修正案 절충안을 내며는 거기에 대한 答을 할때에 그자리에서 할 수도 있는거고 다음 다음에 할 수도 있는거고 그것은 相對側 形便에 따라서 하는 것이예요. 그걸 갖다가 일방에서 내가 지금 당장 修正案 냈는데 왜 대답않느냐. 이거 안하면 판것 討論못한다. 이것은 相對方에 대한 禮遇가 아닙니다.

北(박영수): 宋先生 예우고 뭐고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問題 提起한 순서가 어떻게 되었는데. 날짜문제, 規模問題, 訪問地問題 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提起한 거는 藝術公演團 實況中繼 問題가 있는데 그건 우리만 提起했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그 순서대로 討論해 오다가 오늘따라 왜 그렇게 하는가……

北(김광수): 그 문제 研究하지 않았습니까?

南(宋榮大): 아니 우리 充分히 研究했어요, 충분히 했어요, 方案이 있어요.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合意할때 뭐라고 했습니까?

時期問題, 規模問題, 訪問地問題 順序로 합시다. 하고서 헤어질때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면 내가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2次接觸 그 말미에가서 비록 時間은 갖지만 이 자리에서 訪問地問題 討論합시다, 하니까 貴側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오늘 時間 많이 갖으니까, 다음번 만나서 訪問地問題 討論합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며는 오늘 당연히 訪問地問題가 먼저 討論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北(박영수):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또 訪問地問題, 날짜문제 가만히 있어요. 좀 가만히 있어봐요! 訪問地問題, 날짜문제 規模問題 討論하고 訪問

地問題, 오늘 討論하자 말입니다. 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 討論합니다.

南(李峻熙) : 하는거예요. 하는데, 그 일차問題하고 이제 規模問題를 貴側에서 내놓았는데 日字問題가 우리가 提議한 날짜하고 지금 ……

北(박영수) : 合意됐어요, 이제 …….

南(李峻熙) : 合意에 말하자면 合意에 問題없는, 合意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構成 規模問題에 대해서는 貴側이 내놓았다 이겁니다.

아 우리도 생각할 여유를 줘야지 그러면 가만히 얼굴만 쳐다보고 여기 있을 겁니까?

北(박영수) : 아니, 그러면?

南(李峻熙) : 생각할 餘裕를 주어야 되는데 ……

北(박영수) : 생각 못해서 …….

南(李峻熙) : 아니지, 貴側에서 案을 내셨다고 해서 자 내놔봐라, 아까 우리 저 首席代表도 얘기 했지만, 그것은 強要에 불과한 것이지, 相對方에서 檢討할 時間的 餘裕를 주고 그럼, 자 어떻게 할 것이냐 訪問地問題하고 公演地問題는 지난번에 2次會談때 우리가 討議를 못하고 넘어간 部分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意見을 서로 개진하고 討議하자는 것이 뭐가, 뭐가 無理한 要求가 아니잖아요.

南(李柄雄) : 그 問題를 자꾸 피해 넘어갈려고 ……

北(박영수) : 가만 있어요.

南(李柄雄) : 우리가 이걸 즉 意見을 開陳해서 듣고,

北(박영수) : 가만 있어요, 柄雄先生!

南(李柄雄) : 그리고 意見을 討議해서 매듭을 짓자 이 얘기죠.

北(박영수) : 柄雄先生 조금 참읍시다. 내, 저 明白히 하지요.

순서대로 討論합시다. 그런데 訪問地問題를 오늘 時間이 늦더라도 討論을 합시다. 나는 그걸 同意합니다.

그러니까 訪問團 規模問題를 이 자리에서 討論하십시오. 이 問題에 관해서 자꾸 誤解하면서 지금 強要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우리가 強要하는 게 아니라 訪問團 規模問題에 대한 그쪽 案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우리 걸 당장 받아 들이라는건 아니예요.

南(李峻熙) :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案을 내놓는다구요?

南(宋榮大) : 가만 있어보세요.

北(박영수) : 그러니까 그것을 내 놓고, 그쪽 案 내놓고 우리 案 내놓은 걸 내놓고 討論을 해야 되겠다, 하자는 말이에요. 순서가 있는데, 그걸 자꾸 ……

北(김광수) : 아이고 답답하다.

처음에 規模問題를 얘기 안하셨습니까? 기본발언에서 우리 基本發言 이 야기들은 다음에 내 놓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

南(宋榮大) : 아, 내가 지금 그랬잖아요.

北(박영수) : 그 規模問題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없는것 아니야요.

南(宋榮大) : 訪問地問題 討論한 다음에 規模問題에 관한 貴側 修正案에 대한 입장 밝히겠다고 分明히 얘기했습니다. 나 討論안하겠다고 말 안했어 요. 입장 밝히겠다고 그랬어요.

北(박영수) : 아 가만 ……

南(宋榮大) : 들어보시라고, 들어보시고 ……

北(박영수) : 내가 그걸 좀 明白히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訪問地問題에 대한 案을 宋先生이 얘기를 하고, 연이어서 規模問題에 대한 意見을 낸다는거지요?

南(宋榮大) : 그러니까 연이어서 그렇게 자주 條件을 붙이지 마세요.

내가 發言하는데 이것은 내 自意에 의해서 發言하는 거예요.

다만 이 자리에서 오늘 이 3次接觸 끝나기 전에, 이 規模問題에 관한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 그겁니다. 내가 그러면 됐잖아요?

北(김광수) : 宋先生 거기에 意見이 있어요. 왜 순서는 바뀌요?

南(宋榮大) : 무슨 순서를 바꾸요?

北(박영수) : 討議順序를 왜 바꾸느냐 말입니다.

南(李峻熙) : 討議順序를 따지면야 2次 會談때 討論 못한 나머지 問題 時間때문에 못했잖아요.

北(박영수) :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서 첫째부터 날짜문제에 대한 案을 내 놓았어요? 訪問地에 대한 것 내 놓을 것이지, 아까 우리 광수대표가 얘기를 한거

南(李峻熙) : 당연히 우리가 지난번 내놓았지요.

北(박영수) : 아니, 아니

南(宋榮大) : 내가 말이지요, 이거 날짜문제 修正案 내놓면서 貴側더러 이거 꼭 받으시요, 이것부터 合意해야 된것 합니다. 이말 했습니까? 난 그말 안했어요.

北(박영수) : 누가 그쪽에 強要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強要해서 거기서 또 들을 사람들이요?

南(宋榮大) : 그러니까 貴側 修正案에 대한 우리側 立場表明은 우리의 形

便과 自意에 의해서 하는거요. 그걸 갖다가 꼭 이자리에서 이어서 하라 이라는 것은……

北(박영수) : 얘기를 바로 바로 듣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修正案에 대한 意見を 내라는게 아니라 우리는 訪問團 規模問題에 대한 修正案을 내놓았던 말입니다. 그렇다며는 거기에서는 訪問團 規模에 대한 그쪽 案을 내 놓으라 이거예요, 그래놓고 討論하자 이겁니다.

南(宋榮大) : 이렇게 합시다.

北(박영수) : 무슨 여기다가 強要고 뭐고, 어떻게 무슨 強要라는 있을 수 있어요?

南(宋榮大) :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 訪問地問題에 관한 우리側 立場을 表明한 다음에 規模問題에 관해서 내 意見を 얘기하겠어요.

北(박영수) : 연이어서,

南(宋榮大) : 들어보세요, 자꾸 條件을 붙이지 말고……

南(李峻熙) : 느낌이 이상하다구요. 연이어, 연이어……

北(박영수) : 強要란 말이……

南(李峻熙) : 強要보다는 느낌이 안좋다고……

北(박영수) : 그게 아네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問題는 그게 아니예요, 오늘 여기서 이거 뭐다 회담 한두번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그래요?

訪問地問題 實例를 들어서 論爭이 걸어진다. 한시까지 두시까지 갔다.

訪問團 規模問題 오늘 討論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며는……

南(宋榮大) : 왜 못하기는 못해요. 오후라도 할 수 있는데!

北(박영수) : 訪問地問題를 얘기하시려는 아무래도 時間이 ……

南(李柄雄) : 마찬가지로 그거야, 規模問題를 자꾸 얘기하다가 時間이 오
래갔으니 그만합시다. 해서 …….

北(박영수) : 規模問題 다 내 놓았는데 그거 가지고 討論못하겠소?

南(李柄雄) : 마찬가지로 뭐 전체 意見을 죽 다 내놓고 얘기를 하자 이
거예요.

北(김광수) : 柄雄先生이 얘기하는게 자리가 좀 맞지 않게 얘기하기 때문
에 얘기하는 겁니다.

南(李柄雄) : 자리가 맞지 않다니요!

北(박영수) : 가만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

北(김광수) : 1次會談이나 2次會談때 두차례 會談때 雙方의 案을 다 내
놓았는데 對峙돼 있었습니다.

세가지 네가지 問題라고 하면 네가지 意見이 對峙돼 있는데, 對峙돼 있
는 意見 가운데서 日字問題만 처음 討論해서 妥結됐단 말입니다. 그럼 다
음 問題를 또 討論해야 될게 아닙니까?

다음 問題를 討論하기 위해서 우리는 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貴側
도 다음 問題에 대한 案을 내놓고, 案을 우리걸 받아들이라 이렇게 強
要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貴側의 案을 내놓으면 그걸 討論하고 그렇게하고 요전
번에 討論못한 또 다음 問題를 討論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러나 貴側이 얘기하는 것은 날짜문제는 전번에 討論하지 않은 問題
를 먼저 討論하자 해 놓고 날짜문제 먼저 討論하면서 말과 행동이 맞
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하고 規模問題는 뒤로 미루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貴側에서 말하는거 하고 行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게끔 從前대로 내려갈려면, 날짜문제 討論한 다음에 規模問題를 討論하고 訪問地問題를 다음에 討論하고 그 다음에 實況中繼 問題를 다음에 討論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우리 다른 意見 없습니다. 強要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強要한다면 그쪽이 들겠습니까? 貴側이 우리한테 強要해도 우리도 듣지 않을 겁니다.

이 問題는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南(李柄雄) : 그러니까 왜냐하면 訪問地問題가 …….

北(김광수) : 柄雄先生!

南(李柄雄) :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왜냐하면 訪問地問題와 지금 이 規模問題는 故鄉訪問團, 藝術團도 있고 隨行員도 있고 記者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을 이러한 問題와 討議를 해서 規模에 대해서 또 檢討해야 될 事項이 있다. 그래서 이 問題를 먼저 檢討를 하자는 겁니다.

北(박영수) : 그 問題에 대해서는 인제 더 하지 맙시다.

큰것도 아닌걸 가지고 이거 먼저, 저거 먼저 자꾸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 大膽하게 우리가 讓步를 합니다. 지는게 형이라는데 형이 되기 위해서 내 讓步를 하겠습니다.

南(宋榮大) : 이게 정상이에요.

北(박영수) : 내가 지는게 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

南(宋榮大) : 제 軌道를 가는 거예요.

北(정덕기) : 정상이야 순서대로 하는 것이지요.

北(박영수) : 柄雄先生 담배 좀, 큰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言聲이 높아
저서 이거 저 霧圍氣를 緩和시켜야 되겠습니다.

南(宋榮大) : 진작 그렇게 하셔야지 …….

北(박영수) : 저 담배 안피우시오?

南(李峻熙) : 담배 태우라고요? (웃음)

南(李柄雄) : 어디 한번 피어봅시다.

北(김광수) : 「친선」 이거 이번에 새로 만든건데, 맛이 괜찮습니다.

北(박영수) : 어쨌든 오늘 訪問團 規模問題를 같이 討論합시다. 訪問地 問題와 함께 …….

南(宋榮大) : 같이 討論해야지요.

北(박영수) : 예, 저 그래서 所願이 訪問地 먼저 討論하자고 한다며는,
意見내십시요.

南(宋榮大) : 所願이 아니라 이것은 …….

北(박영수) : 무슨 또 얘기야요, 무슨 또 대답을 하지 않고 …….

그저 讓步해줬으면 그대로 고맙수다 할 것이지 뭐 자꾸 그렇게, 그렇게 讓步도 하고 …….

南(李柄雄) : 讓步라고 참 …….(一同웃음)

南(宋榮大) : 사실 오늘 그 時期問題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통크게 讓步를 한거지요.

저 訪問地 問題를 보며는 그 藝術團의 訪問地問題에 관해서는 그 雙方 모두가 다 서울·平壤으로 했기 때문에 別問題가 없다고 생각

을 합니다.

다만 故鄉訪問團의 그 訪問地에 있어서 우리側은 이 故鄉까지 直接가도록 해주자 하는 提議를 했고, 貴側에서는 서울·平壤으로 하지는 점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故鄉訪問團이 故鄉까지 가는게 좋겠다 하는 그 이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雙方은 第2次 訪問團 交換事業의 名稱에 관해서, 이미 意見의 一致를 보고 있습니다. 뒤, 우리側은 第2次 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團이다. 貴側은 제2次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이다. 이렇게 表現을 하고 있습니다.

雙方 모두가 다 故鄉訪問團이라고 하는 名稱에 合意가 되어있는 마당에 이름 그대로, 문자 그대로 離散家族들이 故鄉까지 가도록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理致입니다.

만약에 고향을 안가고 서울·平壤만 간다면 이름을 서울訪問團 또는 平壤訪問團으로 고쳐야 될 겁니다. 이 故鄉이라 하는 두 글자를 넣은 이상 故鄉까지 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한 우리가 故鄉訪問團의 訪問地를 故鄉으로 정한것은 離散家族들의 의사를 尊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雙方은 70年代初 第2次會談에서 赤十字會談 議題로 설정된 問題解決에 있어서, 民主主義原則·自由로운 原則·人道主義精神 등을 徹底히 具現한다 하는데 대해서 合意했습니다.

여기서 民主主義原則·自由로운 原則이라는 것은 離散家族들의 自由意思를 尊重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며는 우리側 離散家族들은 지금 어떠한 생각과 意思를 가지고 있

느냐; 모두가 다 故郷까지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의 實例를 들지요. 지난번 秋夕때 우리 國民가운데 2千萬名이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고향을 가기위해 이동했습니다. 故郷에 가서 省墓도 하고, 어른들, 親戚들 인사드리기 위해서 故郷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狀況을 지켜본 우리 離散家族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분단 40여년 동안에 망향의 한을 풀고 살아온 이들은 내가 죽기전에 고향땅 한번 밟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졌을 겁니다.

이 고향을 가고자 하는 심정은 人間共通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은 非人間的입니다. 내가 지난번 會談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달초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離散家族大會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한 萬七千名 모아가지고서 결의를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번 第2次 訪問團事業을 할 경우에는 故郷訪問團이 위주가 되어야 된다, 또 省墓를 반드시 해야된다 하는 內容의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같은 離散家族들의 의사를 尊重해야 되고, 또 이들의 의사를 尊重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雙方이 70年代初에 合意한 정신과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겁니다.

뿐만아니라 우리가 이 故郷訪問團의 訪問地를 고향으로 정한것은 이번 2次訪問團事業의 趣旨를 살리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 訪問團事業의 目的은 雙方 모두가 다 離散家族들을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우리側은 말할것도 없고 貴側도 그동안에 여러차례 發言을 통해서 離散家族 苦痛解消에 모든 것을 服從시키자 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2次訪問事業의 目的이 離散家族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제한된 家族相逢의 기쁨이나 希望外에 또 다른 보다 큰 기쁨과 希望을 그들에게 안겨줘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이번에 몇백명이라도 자기 故鄉까지 가게되면 그들의 家族과 親戚을相逢할 뿐만아니라, 친지·동네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省墓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고향의 나무 한그루, 돌한개, 풀한포기만 보더라도 따뜻한 人間的인 정감을 느낄겁니다.

이렇게 되며는 이들이 望鄉의 恨을 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몇백명의 離散家族들이 고향을 가서 家族·親戚을 만나고, 親知를 만나고, 동네사람을 만나고, 省墓를 하게되고, 또 그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TV를 통해서 다른 많은 離散家族들이 보게 된다며는, 그들도 참다운 希望을 가질겁니다. 용기를 가질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와같이 고향 갈수 있다 하는 希望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訪問地를 故鄉으로 하자는 것은 지난 1次訪問團事業의 不合理的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번에 平壤을 訪問한 우리側 離散家族가운데, 海州나 開城에 고향을 둔 사람이 包含돼 있었습니다.

이들이 平壤까지 가서 家族을 만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 故鄉을 지척에 두고 낯선 平壤에 가서 家族을 만나고 오니까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더라, 다음번에 이런거 하게 된다면 이런 모습은 좀 시정하는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赤十字社에서는 이들의 그와같은 심정을 理解하고, 그 또 主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가 訪問地를 故郷으로 정한것은 雙方이 本會談에서 合意한 自由往來精神과도 부합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雙方은 本會談에서 5個項 議題事業을 실시하기 위한 몇가지 手段·方法의 하나로써 自由往來問題에 관해서 原則的인 合意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自由往來節次에 관한 合意書草案까지 雙方이 提示해 놓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訪問團이 자기고향까지 直接가게 되며는 결국 自由往來에 유리한 與件을 조성하게 되고 그것은 마침내 本會談議題 妥結에도 좋은 雰圍氣를 提供할 겁니다. 自由往來하자면서 이 故郷訪問團, 故郷訪問하는거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나는 이상과 같은 몇가지 見地에서, 이번에 故郷訪問團은 訪問地를 故郷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問題에 관해서 貴側의 意見을 좀 말씀하시죠.

北(박영수) : 하하~ 내가 왜 웃는지 아십니까? 난 또 訪問團 規模問題에 대한 意見까지 나오는가 했는데 끝내 나오지 않누만. 아간 또 말하겠다고 그랬던것 같은데 안하누만…….

南(宋榮大) : 이 問題, 한번 貴側에서 意見開陳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北(박영수) : 讓步하는 바에는 한번 끝까지 해 봅시다. 訪問團 規模問題에 대한 案을 이어서 내겠다고 그러고선 또 안내니까…….

그럼, 이제 訪問地 問題에 대한 宋先生 發言이 있었는데, 그 問題에 대

한 우리의 立場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訪問團 規模問題에 대한 討議를 들어갈 것을 바랍니다.

訪問地 問題, 故鄉訪問團이 平壤과 서울에 가서 血肉들을 만나는가 아니면 직접 故鄉까지 가는가. 이 問題를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85年度에 세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보며는 아주 尖銳한 論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낙착이 되었는가, 平壤과 서울로 하는데 낙착이 있었고, 그 合意事項에 따라서 85年9月달에 第1次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이 成果的으로 進行이 되었습니다.

이 問題를 처음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벌써 數時間에 걸쳐서 論議되었고 또 結果로 해서 合意되어서 實踐에도 옮긴 바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故鄉까지 가느냐, 平壤·서울까지 가느냐 하는 問題를 나는 어떤 立場에 있는가 하며는 다시 論議할 必要도 없다. 나는 그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내 조금 說明을 하지요. 그 問題에 대해서, 흠어진 家族·親戚들이 故鄉으로 마음대로 가게 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一貫한 立場이고 이것을 빨리 實現시켜주자 하는 것이 우리의 希望입니다.

우리가 本會談에서, 8次本會談에서 自由來往을, 議題5個項事業 實施하는 데서 中核的이고 基本方途라고 提起하면서 自由來往을 實施하자, 이걸 우리가 提起한 것도 바로 그러한 趣旨입니다.

흠어진 家族·親戚들 自由來往 시켜주어야 합니다. 自由來往 시켜주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 赤十字人들이 實現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本會談도 하며는 이 問題가 또 論議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段階에서 故鄉訪問團이 직접 故鄉까지 가는가 이 問題인데, 이

문제에 대한 解答을 하자며는 85年度에 第1次 藝術團·故鄉訪問團 交換事業을 할 때 雙方 合意事項부터 얘기를 하는게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8次會談에서는 藝術團·故鄉訪問團 交換事業을 象徴的인 事業으로 進行하기로 명백히 合意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象徴적으로 하자고 한 것보다도 하기전에 그쪽 代表들이 먼저 象徴적으로 하자는데 대해서 提起를 했고, 그것으로서 意見의 一致를 보아서 合意되어서 결국 象徴的인 事業으로 1次 訪問團 交換事業이 進行이 되었습니다.

뭐인가 그때, 8.15 解放 40돌인데, 또 赤十字總裁들이 藝術團을 데리고 가면서 어떻게 흩어진 家族·親戚들을 하나도 안데리고 가겠는가. 그래도 데리고 가는게 理致上으로도 옳다해서 모든 흩어진 家族·親戚들에게 나도 살아 생전에 血肉들과 相逢할 수 있겠구나 하는 希望을 안겨주자. 그래서 8.15 40돌이 重要하다. 그것을 그쪽 代表들이 많이 強調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強調했고, 8.15 40돌, 이것이 重要하다. 이런 契機에 한번 우리가 이런 希望을 주는 事業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合意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다 本會談 參加者들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겠는데, 그러며는 象徴的인 事業이란게 도대체 무엇인가?

象徴的인 事業, 그쪽 辭典도 내가 봤습니다. 우리 辭典도 물론 보고. 象徴的이란 무엇인가. 「象徴」여기에 대해서 어떤 事物, 事象·情操등을 이것과 어떠한 意味로 상통하는 다른 事物에 의하여 聯想的으로 表現하는 일, 또 그 對象物 즉 흰색은 純潔의 象徴이라고 할 때, 흰색같은것 「象徴」이라고 할 때 이겁니다.

우리가 藝術團·故鄉訪問團 交換事業을 할 때 象徴적으로 進行한다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직접 흠어진 家族·親戚들의 苦痛과 不幸을 덜어 주는 또 自由來往을 實現해 주는 이 事業이 아니라 그들에게 血肉들과의 相逢과 또 그 기쁨에 대한 希望, 이것을 안겨주기 위한 그 어떤 事業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뜻에서 이번 藝術團·故鄉訪問團 交換事業을 하는데 이제 宋先生 發言에서 이번 訪問團의 目的이 무엇인가. 흠어진 家族·親戚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데 基本目的이 있다.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보건대는 금번 訪問團 交換事業의 趣旨와 그 目的에 대해서 이 건 잘못 理解다. 물론 訪問團 交換事業을 하며는 그 만나는 相逢하는 當事者들에 한해서는 血肉들과의 相逢에 대한 기쁨 안겨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불과 몇명에 대한 기쁨을 안겨주는게 우리의 使命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안겨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며는 우리 側에 보내온 7月 12日字 그쪽 便紙에서 第2次 藝術團·故鄉訪問團 交換事業을 85年度 그 先例에 따라서 實現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便紙를 우리한테 보내 왔습니다. 85年度 했을때에 先例가 무언가. 象徴적으로 進行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象徴적으로 進行하자는데 대해서 貴側도 同意를 했다는 것으로 認定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重要한 問題는 이와 關聯해서 故鄉訪問團 成員들이 故鄉까지 가고 家族·親戚들과 自由롭게 만나는 것, 이 事業은 明白히 本會談에서 解決해야 될 問題입니다. 本會談 소관입니다.

지금 우리 그것의 議題는 말할것도 없고 本會談에서 自由來往을 實現할데 대한 問題를 討論하고 있습니다.

宋先生이 얘기한 것처럼 自由來往에 대한 合意書까지 지금 내놓고 그걸 合意하자고 하는 이 마당인데, 그러며는 故鄉訪問團 成員들이 故鄉까지 가고 지금은 또 故鄉까지만 가면 되는가 故鄉까지 간다는 것도 事實上에 있어서는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뭐 意味가 없습니다.

왜그런가. 벌써 흩어진 家族·親戚들이 血肉들과 갈라진 이후 40餘年이지났는데 故鄉에 家族·親戚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불과 몇인가? 오히려 故鄉을 떠나서 다른데 가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거 事實이 아니에요? 南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며는 故鄉에 갔다가 家族·親戚 만나러 그 사는데로 또 가야지요? 故鄉訪問團 成員들이 가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히 自由來往에 속하는 問題고 따라서 本會談 소관이다.

그런데 이런 本會談 소관을 이 實務代表 接觸에 옮겨다가 討議·解決하자고 한다며는 이 實務代表 接觸이 새끼 本會談으로 될 수 밖에 없다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별개의 本會談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本會談 討議가 뭐 必要있어요? 實務代表接觸에서 앞으로 다 討議하면 되지 本會談은 뭐이 必要합니까? 故鄉까지 다 가게 하는 판인데 이 實務接觸에서……, 本會談 必要없어 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故鄉訪問團 成員들이 지금 故鄉까지 가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非現實의이다. 지금 段階에서는…….

그런데 지금 宋先生은 뭐이라고 하는가 하며는 秋夕때 故鄉訪問團 省墓하던 사람이 故鄉까지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막는거는 非

人道的이라고 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非人道的이라는 겁니까? 누구라는건 없겠지요? 거기, 그런뜻은 없겠지. 그저 人道的이 못된다는 意味에서 그러겠지……. 나는 거 좋게 생각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故鄉, 平壤·서울로 하자는 것이 非人道的 이겠는가?

南(李峻熙) : 막는 사람이 非人道的이라는 얘기지요!

北(박영수) : 그러게, 平壤·서울로 하는 사람을 非人道的이라는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거기? 그렇다면 내가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南(宋榮大) : 發言 끝내세요. 끝내고 또 얘기 할거니까!

北(박영수) :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는 發言이고 실수하는 發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1次 訪問團때의 不合理性을 是正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故鄉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 말한다면 내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1次 訪問團때 어떻게 됐는가, 내가 저 訪問團 交換이 끝난 다음에 그때 出版物 資料를 하나 보니까 이런 資料가 있습니다.

우리 故鄉訪問團 成員으로 서울에 나간 사람 가운데 원산에서 나간 사람 大學 어느 研究所所長이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相逢對象者 名單을 쓸 때 삼촌과 다른 무슨 父母를 쓰고 누이는 쓰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사람 불찰은 불찰이지요. 그런데 나가서 삼촌하고 그 사람이 만났는데 만나는 過程에 무엇을 알게 됐는가 누이가 있다. 지금 慶尙北道에 지금 누이가 살고 있다. 또 그 누이는 삼촌으로부터 자기 오빠가 왔다는 消息을 듣고 웨라톤 호텔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쪽 赤十字社에서 그랬겠지 뭐 다른데서 그랬겠어요?

赤十字社에서 아니 그건 北에서 나온 사람이 당신은 만나겠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만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막아서……. 3박 4일이지요 그때? 3박 4일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웨라튼호텔 앞마당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끝내 만나게 해 주질 않아서…….

南(宋榮大): 지나간 일까지 다시 그쪽側에서 얘기하실 겁니까?

北(박영수): 이거 저 1次 訪問團의 不合理性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얘인데……, 그래서 그 여자는 끝내 자기 오빠를 만나보지 못하고 떠나는 날도 면발치에서 오빠를 손저어 바래었다고 그러합니다.

진실로 흠어진 家族·親戚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象徴적인 事業으로 進行되는 故郷訪問團 交換事業을 진짜로 本來 趣旨에 맞게 하자며는 이런일 없는데 더 重要합니다.

그래서 이와 關聯해서 뭐 물어보고 싶은말도 많은데 그래서 이 問題는 그만하고 지금 뭐 訪問團 서로 平壤이나 서울이나 故郷이나 하는 問題가 지금 意見이 상치되어 있는데 이 問題는 그저 더 研究하기로 합시다.

南(宋榮大): 지금 貴側에서는 이번 第2次 訪問團事業의 性格이 象徴事業이기 때문에 故郷까지 갈 수 없다 하는 論理를 죽 췌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나는 이번 2次 訪問團事業의 性格은 示範事業의 性格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示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模範을 보여 준다는 뜻입니다. 模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옳게 보여줘야 합니다.

처음 示範때 실수했던 것, 잘못된 것 있으면 다음 示範때는 바로 잡

아줘야 됩니다.

그 바로 잡는 基準이 뭐냐? 離散家族들의 意思, 이번 第2次 訪問團事業을 實施하는 趣旨요, 또 各種 問題에 관한 雙方의 合意입니다.

이와같은 示範事業을 통해서 發見된 成功的 要素는 잘 維持·保存을 하고 또 未洽한 要素가 發見되면 그것은 하나하나 改善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結果적으로 本會談 議題 5 個項事業에 有利한 與件을 造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結局, 이 訪問團事業, 示範事業을 잘, 제 趣旨에 맞게 推進하게 되면 이 結果가 窮極적으로는 離散家族問題 解決의 土臺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事業의 性格을 좀 올바르게 貴側에서 理解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 지금 貴側에서 말하는 것 가운데 앞뒤가 맞지않는 矛盾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貴側은 이 訪問團 規模問題와 關聯해서 뭐라고 했느냐? 先例를 살리면서 發展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지난 번에 分明히 그렇게 말했지요?

北(박영수): 예, 예.

南(宋榮大): 그렇다면 이 訪問地問題에 있어서도 發展적으로 適用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은 發展적으로 하고, 어느 것은 發展적으로 못한다……, 이걸 矛盾입니다.

北(박영수): 내 宋先生, 그 말을…….

南(宋榮大): 아 가만계세요, 가만계세요…….

北(박영수): 아니요, 내 말하자는 게 아니라 宋先生이 그 말을 꼭 들고 나오리라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北側代表들 웃음) 그래서 내가 거

기에 대한 答辯을 지금 즉시 해줄 수 있는데……. 조금 내가 待機하지
요.

南(宋榮大) : 가만있어요.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貴側이 말이죠, 우리에게 그
동안에 보내온 便紙에서 뭐라고 했느냐……, 本會談이 열리기 前이라도 모
든 可能性을 다 利用해서 離散家族들에게 기쁨과 希望을 안겨줄 수 있
는 實踐對策을 마련하자. 그랬습니다.

北(박영수) : 옳지요, 백번 옳지요. 그 말이야…….

南(宋榮大) : 여기, 모든 可能性을 다해서 해주자고 했습니다.

北(정덕기) : 예, 옳습니다.

南(宋榮大) : 우리 雙方 赤十字가 모든 可能性을 다 動員한다고 하면 平
壤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옆에 있는 自己故鄉까지 못간다는 이야기 입
니까?

結局 本會談 妥結되어야 故鄉가고, 그 以前에 못간다는 것은, 이견 억
지입니다.

또 하나, 貴側은 離散家族이 家庭的 雰圍氣속에서 相逢할 수 있도록 해
주자고 提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빈말이 아니고 眞心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家族 相逢
할 때에 서울·平壤호텔이 아닌 離散家族들의 故鄉집에서 만나도록 해주
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故鄉까지 직접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北(박영수) : 좋습니다. 내가 答辯을 하지요.

南(宋榮大) : 기다리세요, 아직 덜 끝났어요.

北(박영수) : 아, 아직 안끝났어요?

南(宋榮大) : 그리고 貴側이 이 자리에서 故鄉까지 가는 問題 討議하게 되

면 이것은 뭐, 小規模의 本會談을 하는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했는데,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서 本會談 5個議題를 다 討議하자는 건 아닙니다. 故鄉訪問團問題 討議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故鄉訪問團 問題가 갖고있는 性格이 本會談 議題와 關聯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議題 2項과 關聯있어요. 議題 2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自由로운 相逢과 訪問問題입니다. 分明히 訪問問題가 있어요. 相逢問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實務接觸에서 이 問題를 舉論한 것은 너무 當然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小規模의 本會談을 하자는건 아니에요.

北(박영수) : 結局은 本會談 縮小版으로 된단 말이죠…….

南(宋榮大) : 지금 本會談 縮小版을 하게 되면 議題 5個項을 다 討論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討論하는 것은…….

北(박영수) : (큰소리로) 5個項 가운데 1個項을 討論해도 本會談아니요? 本會談 所管을 여기서 討論한다고 하려는…….

南(宋榮大) :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訪問團 問題가, 問題가…… 文字 그대로 訪問아닙니까? 또 家族相逢 아십니까?

그리고 本會談 의제항에 離散家族들의 訪問・相逢을 解決해주는 問題로 議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議題 2項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本格的으로 완전 무결하게 討議・解決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聯關이 密接히 있다 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 討議하는 것은 當然한 것이

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또 別途의 小規模의 會談은 아니다. 그거
예요.

이 性格을 貴側이 좀 바로 理解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北(박영수) :제가 좀 얘기합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宋先生이 지금 訪問團 交換事業에 대한 根本
認識을 잘못하고 있다……. 示範事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示範事業으
로 될 수가 없어요.

示範事業은 더우기 自由來往의 示範事業이라구 하는데……. 自由來往,
우리가 合意가 완전히 됐습니까?

本 會談에서 自由來往에 대한 모든 合意가 다돼서 이제부터는 自由來
往 시작하자고 할때에…… 그러려면 단번에 다 열어놓을 수 없으니까,
그때 示範的으로 몇이, 몇명씩 뽑아서 故鄉으로 자유롭게 往來하도록 해
봅시다. 이게 自由來往의 示範事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本會談에서 自由來往에 대한 合意가 완전히 끝나지 않
았어요.

서로 提案을 내놓고, 合意書草案을 내놓은데 不過합니다. 示範事業으로 한
다는 건, 이걸 말도 되지 않아요. 이 訪問團交換의 性格에 대해서 根本
的으로 認識을 잘못가지고 있다…… 내가 이거 하나하고, 發展的으로 하
자고 하면서 왜 故鄉訪問團은 故鄉까지 못가냐? 우리가 이 事業, 우
리가 지워진 使命…… 이것이 있단 말입니다.

發展的으로 했으면야 무엇때문에 300명만 하겠어요? 천명이나 뭐 만
명으로 하지요……. 發展的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다 故
鄉으로 가게 만들죠.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實務接觸에서는 象徴的인 사업으로서 거래들에게 血肉들과의 相逢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主要하게는 希望을 안겨주자, 나도 살아생전에 만날 수 있겠다, 이 希望을 안겨주고 동시에 이 本會談 雰圍氣를 좋게해서 本會談에서의 自由來往 問題가 빨리, 순조롭게 討論되도록, 討議・解決되도록 우리가 그 雰圍氣를 마련해 주자는 意味에서 訪問團 交換을 하는 겁니다.

이게 本會談 縮小版이…… 그렇게 自由來往까지, 故郷까지 가는 問題를 討論하는 것이 本會談 縮小版이 안된다고 하는데…… 한가지만 내 물어봅시다. 故郷訪問團 成員들이 故郷까지 어떻게 가자는게요? 걸어가요? 自動車타고 가요? 기차타고 가요? 뭐, 또, 우리 赤十字 각기 雙方 赤十字社가 案内해서 갑니까? 저 혼자 갑니까? 거, 이제 討論해야 되겠죠? 가게 하자며는……. 그것이 결국 本會談에서 討論해야 할 自由來往 節次란 말이요……. 그걸 우리 實務代表 接觸에서 다 討論하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 저…… 이 問題에 대해서는 相對方의 意見을 알았어요. 나도 그 쪽 意見을 알았고, 그쪽도 우리 意見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問題는 한번 좀더 研究課題로 남깁시다. 研究課題로 남기고…… 訪問團 規模問題 이제 討論하자고, 뭐 新新 約束을 했으니 訪問團 規模問題에 대한 討論을 합시다. 그래, 내 그 問題에 대해서……

南(宋榮大) : 가만 있어요, 가만 계세요, 가만 있어요…….

北(박영수) : ……조금 意見을 말씀을 드리겠단 말이요.

南(宋榮大) : 가만 있어요. 일단……, 이게 지금…….

北(김광수) : 애기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애기 끝나지 않았는데…….

北(박영수) : 조금 계십시오.

北(정덕기) : 애기 끝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南(宋榮大) : 아니, 지금 訪問地問題에 대해서…… 아직 내가 좀 할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들구서 그걸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南(李峻熙) : 그럼, 마치고 합시다.

北(박영수) : 또 거, 저…… 우리가 물러섭시다.

南(李峻熙) : 또 뭐, 물러선다고 하는데…….

北(박영수) : 나 그저 자꾸……, 내 오늘 전부 讓步를 하겠습니다.

南(宋榮大) : 퉁크게 讓步한 건 우리요. 時期問題도 우리가 讓步했지.

北(박영수) : 우리 社會에…… 우리 社會에서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社會生活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너 처음부터 배워야 될게 뭐인가……, 讓步하는 法부터 배우라……, 그게 제일 美德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發言하십시오.

南(李柄雄) : 그런데 한가지 讓步를 할 것이……, 發言을 장황하게 혼자 다 하고는, 그러고는 讓步했다……. (웃음)

北(박영수) : 말, 말 길게 하고 잘하는데는 난 宋先生을 따라가지 못해요.

南(宋榮大) : 아니, 나는, 나는…….

北(정덕기) : 또, 壁을 문이라고 내밀기 하는데서는 柄雄先生을 따라가지 못하겠단 말이요. (兩側代表團 웃음)

南(李柄雄) : 경우에 틀리는 얘기하는건, 난 못참아요. (웃음)

北(정덕기) : 그런 競技大會가 있다면 柄雄先生, 나가서 1等할 것 같애…….

南(李柄雄) : 경우에 맞는 얘기만…….

北(박영수) : 말씀하십시오. 時間도 다……, 벌써 12時 되었는데 빨리 끝
냅시다.

南(宋榮大) : 지금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요, 우리 離散家族들이나 記者들
만나가지고서 흔히 듣는 質問의 하나가 이겁니다. 아 이거, 故鄉訪問團
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서 故鄉을 못간다는게 무슨 理由입니까?

이렇게 물을때는요, 참으로 說明하기가 좀 어려워요.

北(박영수) : 거 說明하는 方法 대달라요?

南(宋榮大) : 자, 그래서요.

기왕에 貴側에서도 故鄉訪問團이라고 하는 名稱을 쓸바에야 故鄉까지
가게 해주는 것이 當然한 도리이고, 만약에 이번에 故鄉 못간다 하면
名稱부터 두글짜 빼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貴側에서 첫 發言부터 쪽
해오던 것 가운데 나로서는 상당히 注意를 기울이고 내가 留意하는 대
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어나 離散家族들에게 相逢의 기쁨과 希望을 안겨주자 이말을 계
속 되풀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離散家族들에게 진정으로 기쁨과 希望을
안겨줄 수 있는 方法이 뭐냐 그것은 아까 제가 말한대로예요.

北(박영수) : 故鄉까지 가는거요?

南(宋榮大) : 故鄉까지 가야되고 그 모습을 다른 많은 離散家族들이 보게
해줌으로 인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故鄉에서 家族을 만나고 省墓할
수 있다하는 希望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어
야 됩니다.

그리고 故郷까지 직접가는 이 問題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
예요. 우리가 조금만 雙方 赤十字가 성의를 기울이면 充分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平壤까지 가는 사람이 그 옆에 남포까지 왜 못갑니까? 그것
해주면 우리 앞으로 本會談에서 協議・解決해야 할 自由往來에 좋은 霧
圍氣 造成에…….

北(박영수) :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사람 혼자 가요? 누구 따라가요?
걸어 가요? 기차타고 가요? 자동차타고 가요?

南(宋榮大) : 案內해 주어야지요. 그거야.

北(박영수) : 그 節次가 本會談에 提起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南(李峻熙) : 그러니까 本會談에 提起되어 있는데, 숫자가 말이죠. 지금 우
리가 全面的인 自由往來가 實現되기 전에 우선 현재 提起되는 狀況에서
小規模 人員들이 오고 가고하는 問題가 있는데 그걸 하나의 示範的이든
象徴的이든 내실을 기해주자는 뭐 무리한 이야기냐 이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外形的인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故郷도 가게 해
주고 그것을 보는 여타의 本會談 타결을 기다리는 1천만 離散家族들이
아,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相當히 고무적이고 期待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어려울 것이냐?

北(박영수) : 되었습니다. 그말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는데, 나한테 發
言權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南(宋榮大) : 넘겨 드릴게요. 내가 分明히 約束을 했으니까 말을 해야지.
訪問地에 대한 討論을 한 다음에 規模問題 討論할 수 있다. 우리 立場
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기때문에 그 問題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北(박영수) : 規模問題에 대한 立場을 밝히겠다?

南(宋榮大) : 예.

北(박영수) : 진작 그렇게 나와야 될건데 …… .

南(宋榮大) : 順理에 따라서, 順序에 따라서, 내 이렇게 보니까 우리 朴先生 성질이 너무 급한 것 같애.

北(박영수) : 어디 남이 기다리겠어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接觸을 눈이 빠지게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빨리 해요.

南(宋榮大) : 朴先生 判斷力도 빠르고 머리좋은 것은 아는데 한가지 너무 급히 서둘러요. 일이라는게 …… .

北(박영수) : 이것 보십시오. 時間을 보십시오. 12時가 다 되었습니다.

北(김광수) : 會談場에서 상대를 갖고 그러면 안되지요. 宋先生에 대한 거 이야기 할려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안합니다.

南(宋榮大) : 서두르지 말자 이겁니다. 차분하게 할 이야기 다하고 그런 이야기지.

北(박영수) : 規模問題에 대한 案을 내놓으시오. 規模問題案을 내놓으시오.

南(宋榮大) : 貴側에서 提起한 規模의 案을 보니까 故鄉訪問團 숫자에 관해서는 우리側도 300, 貴側도 300, 藝術團은 우리側은 50, 貴側은 300, 이렇게 할 경우에 總體的인 숫자면에서 보면 우리側은 350名이 되고, 貴側은 600名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結論부터 말씀드려서 이같은 貴側의 修正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 그 理由가 몇가지 있습니다. 우리 雙方은 70年代 이래 지금까지 人道的 問題를 推進해 오면서 相互主義 原則을 강조했고, 또 이걸 尊重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貴側이 내놓은 修正案이란 것은 相互主義 原則과는 전혀

어긋납니다. 우리가 350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쪽에서 600 들어옵니다.

이것은 누가 보거나 이견 理解 못할 것입니다. 均衡이 맞지 않아요. 衡平의 原則에 어긋납니다.

특히 지난 85年 接觸에 貴側에서 規模問題 이야기할 때 公正性 原則, 互相性原則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가지고 그와는 전혀 달리 이렇게 差等を 두는 이런 提案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貴側은 이번 2次 訪問團事業에 걸고 있는 離散家族들의 念願・意思를 잘못 理解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누이 強調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側 離散家族들은 이번에 2次 訪問團이 交換된다고 한다면 그 構成員은 어디까지나 藝術團보다는 故鄉訪問團 中心이 되어야 된다는 意見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要求가 강렬합니다. 原則으로 따지면 이 藝術團이라고 하는 것은 赤十字 次元에서 할 것이 아니라 南北文化交流 次元에서 해야한다 하는 것이 支配的입니다.

다만 相對側의 立場이 있기 때문에 赤十字事業 次元에서 藝術團問題를 包含시키려고 한다면 그 規模는 小規模로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離散家族들의 절박한 念願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反映을 시켜야 됩니다.

또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赤十字事業 次元에서 會談하면서 事業하면서 거기다가 藝術團을 包含시켜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側에서는 50名 들여보내고 貴側에서는 300名을 우리側에 들여 보내는 것

은 누가 보거나 理解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主客을 顛倒시킨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主客을 顛倒시킨거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藝術團이란게 赤十字事業에 包
숨되어서는 안될게 包숨된건데 하나의 덩으로 붙은건데, 이걸 갖다가 貴
側은 300名 우리側에 보내고 우리는 50名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됩
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南北關係의 狀況을 한번 보십시오. 貴側도 아는바와
같이 南北關係가 多角的인 交流・協力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政府에서는 7.7宣言을 發表를 했어요. 그 內容은 아신바와 같이
南北關係를 交流와 協力の 時代로 轉換시켜 나가자, 雙方사이에 政治人,
經濟人, 言論人, 文化人, 藝術人, 學生까지 往來하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또 내가 알기로는 貴側도 民間級의 對話 接觸을 하자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南北對話가 多角的인 交流・協力 狀況
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때에는 각 專門分野別로 交流・協력이 이루어지
는게 바람직합니다. 무슨 말이나, 離散家族은 離散家族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또 文化人은 文化人들끼리 往來도 하고 交流도 하고 協力해야 됩
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規模를 갖다가 故鄉訪問團 300名 藝術團
50을 내놓았는데 이 趣旨가 貴側 修正案에는 전혀 考慮가 안되었다 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相互主義 原則이라든가,
離散家族의 念願에 비춰볼 때에 貴側의 修正案은 받아들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이것 한가지 첨언합니다.

貴側 主張하는대로 한다면 故鄉訪問團 人員이 故鄉까지 가고, 藝術團들

은 서울, 平壤으로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어요?

貴側이 提起한 相互主義 原則을 무시하고 그렇게 變則的으로 한다면 故鄉訪問團 人員은 自己 故鄉까지 直接 가야되고 藝術團은 서울·平壤까지만 가야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北(박영수) : 몇가지로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說明을 조금 해야될 것 같습니다.

分明히 새로운 것인데 새로운 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理解를 아직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번에 藝術團 規模問題에 있어서 50 과 300, 각기 提案上에서 差異가 나고, 또 그것을 主張하고 있는 形편에서 어떻든 이 藝術團 規模問題로 서로 討論해서 낙착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修正案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修正案은 우선 그쪽 立場을 최대한 받아들여 준 提案입니다. 지금 300 과 50 이 대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걸 가지고 繼續 300 이냐 50 이냐 이 問題를 繼續 討論하다 보며는 서로 讓步하지 않으면 타결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호상 尊重하고 相對方의 主張·立場을 考慮해 주자, 그래서 그쪽에서는 50 名으로 하자 50 名 以上은 안된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300 名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藝術人들의 한결같은 要求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藝術人들은 어쨌든 南쪽에 오래간만에 나가서 藝術公演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일 잘 準備된 것을 가지고 나가서 綜合的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자면 적어도 300 名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우리 赤十字 藝術人들이 몇 차례 찾아와서 正式으로 提

起하였습니다.

『藝術團 300名 꼭 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들의 意思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意見이 좋은건데, 나쁜 것 아는데. 50名 程度면 그쪽에서는 藝術團 規模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300名이 必要한데 동수로 하는게 原則이지만 300名까지 必要없다는데 300名을 하라고 우리가 강요할 必要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서로 다 立場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대로 한다며는. 뭐 어떤 立場에 서는가 하며는 그쪽에서는 藝術團은 故鄉訪問團보다 規模가 작아야 된다고 일관하게 主張하지요. 그쪽에서 50하고 故鄉訪問團을 300名으로 하며는 그게 解決됩니다.

우리는 또 『藝術團과 故鄉訪問團을 동수로 해야된다』 일관하게 이 主張인데, 지금도 그 立場에는 變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 체면을, 立場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가 부언해 얘기를 한다며는 이게 國際에서 通用되는 慣例를 놓고 볼때도 藝術團이 왔다 갔다 한다할 때 더 많이 보내는 것이 더 성의를 보이는 것이 됩니다. 國際 慣例上 더 우호 친선의 表示도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나가며는 흠어진 家族, 親戚들에게도 좋은 影響을 주고 그런데서 우리는 오히려 그쪽보다 더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몇가지 얘기를 하는데 『離散家族들의 要求다』 하면서 故鄉訪問團을 크게하고 藝術團은 조그맣게 하라고 한다는데 앞으

로 서울에 나가는 機會가 있으면 그사람들 내가 만나 보겠어요.

南(宋榮大) : 잘 만나보세요.

北(박영수) : 그사람들이 무엇때문에 故鄉訪問團을 크게 해달라는 要求만 提起하는 것인지, 무엇때문에 그 사람들이 藝術團은 작게 하지요. 그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보건대는 무엇때문에 그런데 간섭을 해요.

南(李峻熙) : 아예 必要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北(박영수) : 그건 나쁜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그런 意見을 提起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예요.

故鄉訪問團도 크게 가게 하는데 藝術團 크게 간다고 해서 무엇이 나빠서..... 크게가면 그 사람들 빛나는데 지장이 있는가? 그런게 없잖아요.

그리고 藝術團은 赤十字에서 할 것이 아니라 뭐 藝術交流 次元에서 해야 된다고 자꾸 하는데 이렇게 後退하지 맙시다. 우리가 藝術團을 같이 해서 한 좋은 經驗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와서 뭐 『이건 원래 赤十字가 할 게 아닌데』 그런 말을 할 必要가 없어요.

좋은 先例를 살려 나가기로 그때 우리한테 보내온 便紙에서 무엇이라고한지 압니까. 좋은 先例 1次藝術團·故鄉訪問團, 이게 얼마나 좋았는가. 참 좋았다는거, 이런 좋은 先例는 繼續 살려나가야 된다고 우리側に 보내 온 便紙에 누누이 強調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7 宣言에 따라서 뭐 그쪽 政府에서도 하자고 한다는데 지금 어디 돼요? 앞으로 되겠지요. 우리도 하자는건데 되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赤十字는 지금까지 北南關係改善, 對話 開拓하는데서 항상 先導的 役割을 해 왔다 말이에요. 그것은 다 認定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文化交流 次元에서 交流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미 좋은 先例를 따라서 藝術團하는 것, 무엇이 나쁘니까? 나쁜 것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12時가 넘어갔는데 이제 充分히 서로의 立場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問題를 가지고 더 論議해야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訪問團 規模問題, 訪問地問題 이것을 오늘 이제부터 繼續 討論해야 결판이 날 것 같지 않고, 이만 결속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南(李柄雄):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그쪽이 修正案, 상당히 뭐 讓步한 걸로 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趣旨는 아까 우리 宋代表님 얘기한대로 相互主義 原則에 어긋나는 그런 提議였다, 그동안 우리가 쪽 南北間에 여러가지 會談과 모든 事業을 하면서 같은 동수로 우리가 일을 해 왔는데 여기서 各各 便利한대로 하자,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새로운 問題를 또 提起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저 말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基本 立場이 뭐냐 이 故鄉訪問團이라고 하는 基本趣旨에 대해서 우리는 充實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藝術的인 次元의 問題라고 그러면 뭐 다른 文化交流 次元에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出發이 赤十字會談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의제는 南北으로 흩어져 있

는 일천만 이산가족을 찾아주는데 基本的인 目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아까 말씀하시던대로 뭐 象徴的인 事業이든 示範的인 事業이든 그럼 우선 먼저 한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거기서부터 出發된것이 故郷訪問團 問題입니다.

그래서 이 故郷訪問團 問題가 어디까지나 우리 여기서는 주된 事業이고 거기에서 總裁도 오시고 또 여기사람이 가니까 雰圍氣를 좋게하기 위해서 거기에 藝術團 人員을 몇명씩 같이 가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대략 수에 있어서는 故郷訪問團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뭐 常識的인 얘기다 하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왜 다시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相互主義의 原則에 의해서 그 숫자는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提議할 때에 이것이 妥當性이 있는 提議나 하는 問題가 疑問點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그쪽에서 檢討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내 드리고 싶습니다.

北(김광수) : 柄雄先生! 그쪽에서 發展的으로 하자,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 規模面에서 故郷訪問團은 300名으로 提起했습니다. 1次訪問때 우리 50名으로 했습니다. 그 6배로 提起했습니다. 우리 또 그렇게 提起하고, 그 다음에 記者數는 100名으로 하자고 提起했습니다. 貴側이 종전에 하던 3.3배로 提起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隨員을 그쪽에서 50名으로 提起했습니다. 2.5배로 했습니다. 종전에 20名으로 했는데, 다 發展的으로 하면서 무엇때문에 藝術公演團만 단 한명도 늘리

지 말라고 하는가? 무엇때문에, 무슨이유로?

南(李柄雄): 지금 우리가 이 처음의 숫자는 雙方間에 서로 提示를 했던 거고, 거기서 가장 우리가 尊重이 되어야 될 것은 相互間 대략 지금까지의 慣例와 이런 것이 尊重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北(김광수): 그럼 300名으로 하지, 300名으로 나오면…….

南(李柄雄): 거기서 300名 아니면 안되겠다,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藝術交流次元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좋은 얘기예요. 본래 藝術團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것이 사실 慣例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本質에서 벗어나서는 困難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거 어디까지나 故鄉訪問團, 離散家族 問題 이런 問題를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데라고 그러면 主된거와 從된것에 우리가 分明히 선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藝術交流, 그 交流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本質的인 趣旨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란 얘기예요.

北(김광수): 主從관계를 얘기하자면 柄雄先生한테 내 다음번에 이야기를 해 드리겠어요. 時間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얘기가 안돼요. 그 主從關係를 繼續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다음번에 柄雄先生한테 明白하게 對答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해 달라면 해 줄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내 오늘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南(宋榮大):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지금 70年代初 以後에 會談을 해 오면서 하나의 不文律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인제 相互便宜主義입니다.

이 相互便宜主義를 우리가 유념을 하면서 내가 이런 意見을 하나 내겠습니다.

藝術團問題, 故鄉訪問團 訪問地 問題도 相互便宜主義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北(박영수) : 그러니까 藝術團 規模를 便宜主義的으로…….

南(宋榮大) : 相互便宜主義的으로 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藝術團 規模가 50名이고 그쪽은 300名이지요?

北(박영수) : 예.

南(宋榮大) : 다음에 인제 故鄉訪問團의 訪問地를 相互便宜主義로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故鄉訪問團 人員은 자기 故鄉까지 直接가고 貴側 故鄉訪問團 人員은 서울·平壤, 저 서울만 오는 거지요?

北(김광수) : 내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그럼 藝術團, 藝術公演團을 相互 便宜主義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藝術公演團이 地方公演도 할 수 있다는 소리지요?

南(宋榮大) : 아니, 그것은 이미 貴側에서 …

北(김광수) : 아니, 그 便宜, 便利하게끔 하기 때문에, 便宜主義로 하기 때문에…

南(宋榮大) : 이것은 저 서울로, 서울로 전제를 한겁니다.

北(김광수) : 우리는 訪問團, 藝術團과 故鄉訪問團 全體가 서울과 平壤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겁니다. 相互 便宜主義로 한다면 地方公演도 예견을 해야 합니다.

南(宋榮大) : 우리는 서울로 전제를 한겁니다.

南(李柄雄) :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대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北(박영수) : 가만, 柄雄先生! 조금 가만 계세요. 明白히 합시다. 藝術團 規模는, 故鄉訪問團 規模는 300名이다. 藝術團 規模는 50名으로부터 300名까지 각기 便利하게 한다. 맞습니까?

南(宋榮大) :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北(박영수) : 藝術團 規模는 각기 便利한 대로 하는데, 우리는 300명까지 할 수 있다. 좋습니까?

南(宋榮大) : 얘기해 보세요.

北(박영수) : 그거지요? 아니 그걸 確認을 해야 돼요.

南(宋榮大) : 아니, 얘기해 보세요. 썩.

南(李柄雄) :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요.

南(宋榮大) : 다 關聯된 問題이기 때문에 全體를 놓고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北(박영수) : 아, 거기까지는 일없고.

그다음에 故鄉訪問團 訪問地는 便宜主義的으로 한다 그겁니까? 그거지요?

南(宋榮大) : 예, 便宜主義的으로 하는데 分명한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故鄉訪問團 人員은 貴側 地域에 들어가서 자기 故鄉까지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貴側 故鄉訪問團 人員이 우리側 地域에 들어와서는 이것은 서울로...

北(박영수) : 아, 故鄉까지 갈려면 가고 서울까지 갈려면 가고 마음대로다?

南(宋榮大) : 아니, 서울이지.

北(김광수) : 便宜主義인데, 便宜主義.

南(李柄雄) : 便宜主義가 그런 問題가 생긴다 이거예요. 50名, 300名이라는 便宜主義가 그런 問題가 생긴다 이거예요.

北(박영수) : 아니 세상에 또 그런법은 없다고. 우리 訪問團, 아니 相互 便宜主義로 한다면 우리도 故鄉訪問地, 故鄉까지 가는거지 우리 사람들만은 왜 서울까지만 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요것만 좀 明白히 합시다. 藝術團 規模는 각기 便宜主義的으로 한다. 이거 아주 좋은 건데요?

南(宋榮大) : 아니(웃음), 그렇게 한쪽만 떼어서 그러지 말고, 全體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

北(박영수) : 아니 宋先生이 이제 提案을 내놓았는데 그거 좋아요. 이제 아주 좋은 거라구.

南(李柄雄) : 글썽 그런 便宜主義로 하면 그런 問題가, 繼續 또 다른 問題가 또 생겨요.

南(宋榮大) :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北(박영수) : 그래, 요거는 어떡하자는 거예요? 가만 있어요, 藝術團 規模는 便宜主義的으로 하고 故鄉訪問團의 訪問地를 便宜主義的으로 한다 이 건가? 이건 統一的으로 하는 건가?

南(宋榮大) : 아니, 그건 그 內容을 들여다 봐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 內容을 구구이 說明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側 故鄉訪問團 人員이 貴側 地域에 들어가서 자기 故鄉까지 다 가고 貴側 故鄉訪問團 人員은 우리側에 들어와서 서울만 다녀가는 거예요.

이건 分明히 하고, 내가 지금 왜 이 問題를 提起했느냐 하면 貴側이

아까 規模問題에 있어서 우리는 總體的으로 350, 貴側에서는 600, 이렇게 不合理하게 내놨기 때문에 그런 論理의 연장선상에서 유추한다면 내가 말한 이런 식의 反論도 提起할 수 있다 하는 얘기에요.

北(박영수) : 아, 이게 提案이 아닙니까?

南(宋榮大) : 예, 提案이 아니고 이런 식의 反論도 提起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北(박영수) : 아, 나는 또 提案이라고, 또.(웃음)

北(김광수) : 아니, 한번 내놨으면 提案을 내놔야지.

南(李柄雄) : 아니, 그얘기 끝나기 전에 그걸 물어보니까 그런 問題가 생기지.(웃음)

北(김광수) :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

北(박영수) : 야, 이거 진짜 갈피를 못잡겠다.

北(정덕기) : 規模問題와 關聯해서 뭐 提案 말씀하시겠다고 하고서는...

南(宋榮大) : 아니, 提案이 아니고...

北(박영수) : 그래서 藝術團規模는 便宜主義的으로 하고 故鄉訪問團의 訪問地도 便宜主義的으로 한다. 이게 난 이제 提案이라고 생각해서 確認했던 건데 提案이 아니고 이런 方法도 있다는데, 그럼 그게 提案인가 提案이 아닌가?

南(宋榮大) : 아니 그러니까 貴側이 말하는 그런 사고를 갖다가 延長시켜 보면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는건데, 論理的으로 말이야.....

北(박영수) : 그러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하겠다는 거예요?

南(宋榮大) : 아니, 이것은 貴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야.

北(박영수) : 아니, 그쪽 提案을 내란 말예요. 提案을 내면 내가 말할

게요. 이거 提案이 아니라는데, 提案도 아닌데 내가 필할려구 심겁게.

南(宋榮大) : 내가 整理하죠. 그러면 整理할께.

北(박영수) :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南(宋榮大) : 規模問題는 이렇습니다. 아까 貴側에서 낸 修正案 있잖아요?

우리의 立場은 역시 規模問題 決定하는데 있어서는 相互主義가 適用돼야 한다는 立場이고요. 그건 分明합니다.

그리고 이 問題가지고 우리가 오늘 討論 많이 했는데 이정도 됐으면 이제는 規模, 訪問地에 대해서 雙方의 立場이 充分히 理解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돌아가서 서로서로 研究를 해가지고, 특히 規模問題에 관해서, 訪問地問題에 관해서 다음 接觸때 절충안을 摸索할 수 있도록 努力을 …….

北(박영수) : 내가 누누이 그러기 때문에 이걸 더 研究하고 다음번에 하자구 그랬는데 자꾸 말하다가 이제 와서 그런 새삼스런 말을 왜 해요.

南(李柄雄) :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요.

北(정덕기) : 現實적으로 놓고 可能하게 이렇게 折衷案이 돼야 될거 같아요.

北(박영수) : 다음 接觸 날잔데, 接觸날짜 問題는 ……

南(宋榮大) : 그건 저 우리 ……

北(박영수) : 그제 이번에, 아무래도 날짜는 내가 잡는게 좋을거 같아요.

南(宋榮大) : 그런 理由가 있어요? 지난번 1次때, 2次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次期 接觸날짜는 내가 부를테니까 하루도 틀리지 말고 받아달라 하는 要求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부를 차례예요.

北(박영수) : 아, 조금 있어요. 가만 있어요.

北(김광수) : 애기하는거 다 듣고 애길 해야지……

北(박영수) : 성미가 급하다고 그러더니 거긴 더 급하네요. 우물에 가서 송
농을 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만보니까 9月 27日 날짜도 그쪽에서 불렀
는데 고만 그날 비가 왔단 말예요.

10月 6日도 그쪽에서 불렀는데 또 비가 왔거든. 내가 오늘 날짜 불
렀는데 어제 밤까지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데 좌악 맑았거든. 맑았던 말
이야. 비 오는데는 아무래도 지장이 돼요. 記者들 活動도 그렇고, 아무
래두 날짜는 내가 부르는게 맑은 날짜로 될거 같단 말이야.

南(宋榮大) : 아니, 第2次 接觸 우리가 불렀는데 좋았거던 그날. 그저 記
憶 안나요?

北(박영수) : 2次接觸이 뭘 좋아요?

南(宋榮大) : 아이구 좋았지, 2次接觸……

北(박영수) : 그래서 저 그쪽에서 두번을 날짜를 불렀으니까, 이번까지는
내가 부르고 다음번에 가서 만약 또 한다면 宋先生이 부르시요. 그렇게
합시다.

南(宋榮大) : 아니, 두번 부른게 아니라……

北(박영수) : 그래서 두번 불렀지. 두번 안불렀다는건 또 뭐예요. 9月
27日, 10月 6日 다 그쪽에서 불렀지.

南(宋榮大) : 아니, 우리가 지금, 이봐요.

北(박영수) : 그래, 내 案을 먼저 내지. 11月 8日, 水曜日.

南(宋榮大) : 11月 8日.

南(李柄雄) : 아유 머네. 11月 8日이던.

北(박영수) : 지금은 그저 앉아서 자꾸 말싸움 하는 것보다 充分히 나오자 마자 合意될 수 있도록 내가 전번에 이거 아까 할려던 말을 못했는데, 전번에 올라가서 오늘 날짜 問題가 어떻게 妥結이 되게 되었는가.

南(宋榮大) : 水曜日.

北(박영수) : 많이 研究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妥結이 될 수 있게 하겠는가? 그 研究結果가 오늘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研究를 해야 돼요. 11月 8日 그때 합시다.

南(宋榮大) : 내가 또 한번 讓步해야 되겠구만요. 그렇게 합시다.

北(박영수) : 그래야 맑은 날짜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오는 날짜에 또 한 단말이야.

北(김광수) : 研究를 잘해서 좋은 合意를 보면 좋은데……

北(박영수) : 자, 그만합시다.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附 錄〉

代 表 團 記 者 會 見

< 代表團 記者會見 >

- * 日時：1989.10.16 (月) 12:49 ~ 13:12
- * 場所：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
- * 發表 및 答辭：宋榮大 首席代表

1. 記者會見文

오늘 3次 實務接觸 結果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接觸은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시 20분에 끝났습니다.

오늘 接觸에서는 대체로 세가지 問題에 關해서 討論을 가졌습니다.

첫째問題는 本會談 再開 및 第2次 訪問團事業의 實施時期問題, 다음 두 번째는 訪問團의 訪問地問題, 세째는 訪問團의 規模問題, 이처럼 대체로 세가지 問題를 가지고 討論을 벌였는데 그중에 우선 그 時期問題에 關해서는 雙方 第2次 故鄉訪問團 및 藝術公演團의 交換時期를 12月8日부터 着手한다. 또 第11次 會談의 開催날짜는 12月15日로 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合意를 했습니다. 다만, 이 訪問團의 滯留期間과 關聯하여서는 우리側이 5泊6日을 提議해놓고 있고, 또 北側이 3泊4日을 提案하고 있기 때문에 이 問題에 關해서는 아직 意見差異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合意가 이루어지게 된 背景을 말씀드리면 우리側은 本會談을 먼저 열고 第2次 訪問團事業을 實施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씀드리면 先 本會談 後 訪問團 實施의 手順이 合理的이고 現實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實務代表接觸을 하루라도 빨리 妥結지음으로 인해서 內외의 期待에 副應코자 하는 立場에서 時期問題에 關해서 修正案을 提示를 했습니다.

다. 時期에 關한 修正案을 우리가 먼저 提示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提示한 修正案에 北側이 同意해 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月8日, 12月15日 날짜問題에 合意를 이룩하게 된 겁니다.

다음 두번째, 訪問地 問題에 對해서는 우리側이 故鄉訪問團 人員은 故鄉까지 直接 갈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主張한데 反해서 北側은 서울과 平壤에 限定시키자 하는 主張을 되풀이 했습니다. 우리側이 故鄉訪問團人員이 故鄉까지 가도록 해야된다 하는 것은 대체로 네가지 理由에서 였습니다.

첫째는 지금 雙方間에 이번 訪問團의 名稱에 關해서 離散家族故鄉訪問團 및 藝術公演團 交換으로 合意를 하고 있기 때문에 雙方이 合意한 名稱이 故鄉訪問團이라고 한다면 當然히 離散家族들이 故鄉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強調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는 지금 우리側 離散家族들 意思와 要求가 이번에는 故鄉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強烈的 要求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考慮한 겁니다.

셋째는, 이번 2次 訪問團事業의 趣旨가 離散家族들의 苦痛을 다소나마 덜어주는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要求대로 故鄉까지 가도록, 省墓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訪問事業의 趣旨와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번째는 故鄉까지 가는 問題는 雙方이 本會談에서 이미 合意한 自由往來精神과도 符合된다 하는 점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雙方은 本會談에서 本會談 議題 5가지를 풀어나가는 解決方法의 하나로서 自由往來를 實施한다 하는 점에 對해서 原則的

인 승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訪問團事業에 있어서 離散家族 當事者들이 故鄉까지 가게 되려는 그 自體가 本會談의 自由往來問題 妥結에 有利한 與件을 提供하고 雰圍氣를 造成할 수 있다.

대체로 이상 말씀드린 네가지 論據에 依해서 우리는 訪問地를 故鄉까지 가는 것으로 提議했습니다. 그러나 北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平壤으로 固執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意見を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訪問團 規模問題와 關聯해서 우리側은 故鄉訪問團 300名, 藝術公演團 50名을 거듭 強調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350명을 거듭 強調한 理由로는 이번 訪問團事業의 中心이 역시 藝術團보다는 故鄉訪問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考慮했고 또 하나는 이 故鄉訪問團과 藝術團은 性格이 差異가 있기 때문에 赤十字次元에서는 故鄉訪問團을 交流시키고 그리고 藝術公演團은 南北文化交流의 次元에서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立場에서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北側은 그 전에와는 조금 다른 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南側은 故鄉訪問團數를 300, 藝術團數 50, 그러니까 합쳐서 350명으로 하고 北側 自己側에서는 故鄉訪問團 300, 藝術團 300, 합치면 600명 規模로 하자고 제의하고 나왔습니다. 이점에 關해서 우리側은 北側의 이와같은 案이 相互主義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기가 困難하다하는 立場을 表明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번 接觸날짜는 北側의 要請에 의해서 11月8日날 오전 10時에 다시 갖기로 승의를 하고 오늘 接觸을 끝냈습니다.

이상 오늘 接觸結果를 말씀드렸습니다.

2. 質疑・應答

質問：11月8日날 만나서 論議될 問題에 대해서…….

答辯：지금 雙方間에 주로 協議・解決해야 될 重要課題가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時期問題, 둘째는 規模問題, 셋째는 訪問地問題, 넷째는 藝術團問題, 다섯째는 其他訪問團에 關聯된 問題, 아까 말한 네번째 藝術團안에 藝術公演內容, 方法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質問：討議는 대충 다 되신 모양인데…….

答辯：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다섯가지가 重要문제인데 그중에 오늘 時期問題에 關해서는 合意가 된겁니다. 이렇게 놓고보면 나머지가 또 네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規模, 訪問地, 藝術團公演問題, 其他 關聯問題, 이렇게 네가지가 남아 있는데 지금 3次接觸이 끝난 오늘까지 이 藝術團 公演問題와 其他 關聯問題는 雙方이 基本立場만 내놓았을 뿐이지 討論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討論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合意가 됐거나 討論이 된 것은 時期問題, 規模問題, 訪問地問題까지만 왔습니다. 아직도 두가지 問題에 관한 討論을 해야될 必要性이 남아있는 겁니다.

質問：아까 말씀하셨듯이 北側이 故鄉訪問團과 藝術團은 300명, 300명으로 하는 것이 相互主義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答辯：지난 85年 1次 訪問團事業 交換할 때에 이 訪問團의 總體的 規模, 總體的 規模를 同數로 合意를 해서 交換을 했습니다.

그 當時에는 各各 151명씩, 勿論 151명중에는 故鄉訪問團 人員數는 同數였고 藝術團 人員數도 同數였습니다. 이렇게 過去의 85年에도 양편이 똑같이, 똑같이 相互主義에 立脚해가지고 實現을 시켰고 또 그동안의 赤十字會談을 해오면서 하나의 不文律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相互主義입니다. 相互主義입니다.

그래서 이런 相互主義 見地에서 볼 때 北側이 내놓은 規模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南韓 故訪團·藝術團 합쳐서 350명이고, 北側 자기네들은 600명, 이진 너무 數的面에서 差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雙方이 그동안 不文律처럼 堅持해온 相互主義와는 맞지않다 하는 점을 저희가 指摘을 했습니다.

質問：4次接觸에서는 다 合意가 될 것으로 봅니까?

答辯：저는 오늘 時期問題에 關해서 合意를 한 것을 큰 成果로 봅니다.

事實 이 時期問題에 關해서 우리가 讓步를 한 것은 그 나름대로 相當히 意味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次, 2次때 本會談을 먼저 하자. 11次會談을 먼저 열자. 그리고 이어서 第2次 訪問團을 하자는데는 重要的 理由가 離散家族問題 解決의 根本問題와 關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離散家族問題를 根本적으로 폭넓게 包括적으로 해결해주는 方法은 本會談 議題 5個項事業을 빨리 妥結짓는 것입니다. 이 本會談이라고 하는게 4年前에 열렸어야 될 會談이 지금까지 못열리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年前부터 本會談 開催準備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本會談이 가지고 있는 比重이 이처럼 重要하고, 本質的 問題고, 또 오래전부터 準備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反面에 이 訪問團 交換事業이라고 하는 것은 準備가 따르는 問題고 하

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本會談 먼저하고 이어서 訪問團하자. 이렇게 우리가 主張해 온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原則에 關聯된 問題인데 北側이 자꾸 이 訪問團부터 먼저 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側으로서는 일단 이 問題가지고 더이상 時間을 끌어서는 안되겠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年內에 이 두事業을 모두다 實施하려고 그러며는 時間이 촉박합니다.

時間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時期問題 하나때문에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時間을 끌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과감히 讓步한 겁니다.

質問：北側이 자꾸 訪問團을 먼저하자는 理由는 무엇입니까?

答辯：그분들은 이 訪問團을 本會談보다 먼저 해야되는 理由로서 本會談 霧圍氣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訪問團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本會談을 좋게 할 수 있는 霧圍氣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기때문에 訪問團을 먼저 해가지고 霧圍氣도 좋게 해놓고 本會談을 하자는데 그쪽 主張입니다.

質問：本會談 霧圍氣가 지금은 좋지않다는 理由는 무엇입니까?

答辯：우리側은 지금 狀況이 故鄉訪問團을 할 수 있고 本會談은 할 수 없는 狀況으로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지금 狀況은 本會談도 당장 열 수 있고 訪問團도 交換할 수 있는 그런 狀況입니다. 그런데 이 北에서는 저희와는 좀 立場을 달리 지금 狀況은 訪問團은 지금 할 수 있으나 本會談은 당장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들 나름대로 主張입니다. 이것은 視角 差異예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더이상 뭐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質問：오늘 저쪽에서 양보한 거는 없습니까?

答辯：全然 없습니다.

質問：林秀卿問題는 言及이 없었습니까?

答辯：林秀卿問題・文益煥問題 오늘 또 그쪽에서 學論했습니다. 그 問題를 學論한데 대해서 저로서는 遺憾을 表明하고 이 問題가 이자리에서 討論될 性質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못박고 實質問題 討議로 誘導를 했습니다. 그래서 文益煥・林秀卿問題가 더이상은 討論이 안됐습니다.

質問：時間的으로는 그쪽에서 文益煥・林秀卿問題를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答辯：오늘도 北側 首席代表 첫발언에서, 첫 發言에서 文益煥・林秀卿問題를 學論을 했고 또 實質問題 討論途中에 이 問題를 다시 提起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會談 外的問題를 가지고서 質的問題 討議에 地장을 招來해서는 안된다 하는 立場을 強力히 밝혔고 거기에 北側이 同意해 온 겁니다.

質問：北韓側이 故鄉訪問團數를 300명으로 하고 藝術公演團數를 300명으로 해서 同數概念을 상당히 중시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故鄉訪問團 300명으로 合意가 됐고, 藝術團은 300명과 50명을 절충하려는 것과 同數概念과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까?

答辯：北側은 이 故鄉訪問團 300, 藝術團 300, 이렇게 同數概念을 主張하는데요. 아마 제가 받은 印象으로는 藝術團에 대한 關心이 대단한 거 같습니다. 대단한 거 같아요. 그러나 우리側 立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離散家族들의 여러가지 意思, 要求 또 두 事業이 갖는 性格上的 差異의 問題들을 考慮해서 藝術團의 숫자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適合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藝術團을 갖다가 北韓側에서 關心을 가지고 굳이 늘리자고 한다면 南北文化交流의 次

元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質問：4次會談 展望을 좀 말씀해 주시요.

答辯：일단 오늘 接觸에 重要한 問題하나가 妥結이 되기 때문에 訪問地問題, 規模問題가 이제 남아 있는데 저는 이 問題도 雙方이 相互 尊重하고 또 讓步하는 精神을 發揮하게 되면 折衷點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質問：問題는 時期問題를 미리 定해놓고 그다음에 議題問題를 들어가기 때문에 會談이 進行되는 狀況을 보아가면서 時期를 決定해야 되는데 거꾸로 뒤집어진 것이 아닙니까?

答辯：옳은 말씀인데요. 事實 이 時期問題는 事實上 앞으로 남아있는 訪問地問題, 規模問題와 密接한 聯關이 있습니다. 만약 이 時期問題를 合意해 놓구요. 訪問地問題, 規模問題에 관해서 意見接近이 안되면 우리가 合意한 날짜에 이 두 事業을 實施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相互 密接한 聯關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時期問題에 대해서 먼저 討論을 하고 合意를 했느냐 하면 우선 雙方이 모두가 다 年內에 하자라고 하는 立場이 있었고 雙方 내놓은 提案文 順序로 보아서 이 時期問題가 제일 처음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時期問題에 合意를 본거죠.

質問：그러면은 우리側 赤字는 돌아가서 準備를 하실 것입니까?

答辯：準備는 이내 着手를 했습니다. 지금 訪問團 構成問題에 關해서는 相當히 準備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年內에 이 두 事業을 꼭 實現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立場입니다.

質問：4次會談은 지난 1次, 2次, 3次會談이 9月27日, 6日, 16日 이렇게 10日 간격으로 進行되어 왔는데, 實質的인 合意가 시작되는 狀況에

서 간격은 20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答辯：次期接觸을 11月8일로 合意한데 대해서 質問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11月8일은 北側에서 提議한 것을 우리가 受諾한 겁니다. 우리側에서는 事實은 날짜를 좀 땡기려고 그랬습니다. 11月8日보다 훨씬 좀 앞땡겨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北側에서 굳이 11月8日을 主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受容한 겁니다.

質問：이번 會談에서 서로 Press guideline을 정했습니까?

答辯：그것은 아직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質問：事業時期가 定해졌는데요. 選拔隊가 미리가는 問題에 대한 얘기는 안나왔습니까?

答辯：아직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안나왔어요.

質問：조금전에 Press guideline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側이 4次會談을 며칠로 提案했는지 서로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答辯：그런 건 없었어요.

質問：며칠로 提議했었습니까?

答辯：4次接觸을? 사실은 順序로 봐서는 우리側이 4次接觸을 먼저 提議할 차례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北側에서 提議한 날짜를 우리가 받아서 오늘했기 때문에 다음 4次接觸日字는 우리가 먼저 提議하는 것이 順序인데 또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北側에서 이번에 하여튼 이번에 먼저 부를테니까 남쪽에서 좀 들어다오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다음 機會에 뵙도록 하고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